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5장 7-8a절

가족이 '우상' 될 수 있다!

CT, '가족 먼저' 라는 교회가르침에 대한 러셀 무어의 성경적 진단/지침 보도

많은 사람이 복미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가족'일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으로 일면 타당하고 필요하며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 한다면, 사람들이 우상들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요일5:21). 그런데 이 시대의 우상들은 대부분은 가족책임감(family responsibility)이라는 '압박'과 심지어 가족개념(family definition)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미명을 내세운다. 바깥의 문화가 성문란, 성정체성 혼란, 이혼 문화, 결혼생활의 파탄을 추켜세울 때, 교회는 다른 시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시각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족에 대한 사명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 밖의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질서와 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대부분 "가족"의 가치를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리라"고 명령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니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마10:29, 30).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린다"는 뜻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말 가족을 버려도 되는 것인가? 라고, 세상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또 있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자칫하면 "미묘한" 우상숭배의 영역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셀 무어(Russell Moore)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교회 안팎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한다(Russell Moore: Putting the Family First Puts the Church at Odds with Jesus: He came to divide sons from their fathers and daughters from their mothers-not to promote "family values.").

무어 박사는 먼저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들과 가족에 대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 복미 기독교 교회의 이상한(?) 현실을 고발한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경제 안에서 가족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결단코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족이 먼저라고 교인들에게 마치 형이상학적 가치를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신 예수 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가족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해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족을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상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구별이 요구된다.

우상과 우상숭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그저 고대인들의 미신적 종교관습에서 금이나 은, 동 같은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팀 켈러



목사는 현대인들 또한 그 모양만 다를 뿐, 똑 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ounterfeit Gods: The Empty Promises of Money, Sex, and Power, and the Only Hope that Matters). 한마디로, 그는 우상을 가짜 신(counterfeit gods)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어떻게 고대인들의 미신적인 우

상숭배가 현대인들에 삶 속에 속속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파고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준다. 켈러의 정의에 따르면, 가짜 신, 즉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20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

리스팅 작업 마감 8월말, 광고 8월초 마감

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이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8월말이며 광고마감은 8월초까지 가능하다. 본 주소록에 리스팅 게재를 원하는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은 게재 내용을 8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김인환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믹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HE NATIONAL DAY OF PRAYER | MAY 2, 2019

2019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

68TH NATIONAL DAY OF PRAYER | PRAY FOR AMERICA & KOREA

국가 기도의날 연합기도회

특히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 4월 28일을 특별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주일예배 시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2일(목) 저녁 7시 30분(찬양 7시 15분)
-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A., 90027 (213)220-1803
- 강사** 말씀선포로 진유철 목사와
기도인도강사로 한기홍 목사, 민종기 목사, 민경엽 목사와
20여명의 기도자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 공동주최**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 공동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019년 나성순복음교회
- 참가문의와 연락** 미주성시화운동본부
621 S Virgil Ave. #455, L.A., CA 90005 213-384-5232
- 홍보동영상다운로드** www.nationaldayofprayer.org

● 발행인 칼럼 ●

튜닝(tuning)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관현악은 수많은 악기로 이루어져 멋지게 연주한다. 연주할 때 악기마다 각기 자기 소리를 알아서 내는가? 그렇지 않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뿔뿔 소리를 내면서 튜닝을 한다. 튜닝을 하고 나서야 아름다운 선율, 웅장한 화음을 이루는 연주가 시작된다. 튜닝을 할 때 통상(通常) 기준이 되는 악기는 오보에(oboe)이다. 고등학교 때 어느 학우(學友)가 오보에를 연주하였다. 독특한 그 음에 마음도 귀도 매료(魅了)된 바가 있다. 오보에의 음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다. 관현악에서의 자리도 정중앙(正中央)이다. 악기 하나하나의 깊이와 울림을 잘 모르는 문외한(門外漢)이 오보에만을 예찬(禮讚)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기본”을 “튜닝”이란 용어로 다시 생각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튜닝이 이를 궁극적인 하모니를 목상하고자 함이다. 정본청원(正本淸源)이란 말이 있다.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이다. 근본이 바르지 않고 근원이 맑지 않은 사람이나 사업은 반드시 참담한 결과를 빚는다. 하루의 기본은 아침이다. 아침에 바르게 튜닝을 하지 않고는 불협(不協)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일단 잊어야 한다. 어제 잊어야 하고 지난날도 잊어야 한다. 찬란함도 잊어야 하고 누추함도 잊어야 한다.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 아니던가. 다시 새로 시작해 보라고 주신 은총의 시간이 아니던가. 아침에 왜 지난날을 회고(回顧)하며 회한(悔恨)에 빠지는가.

“여호와와 인자와 공활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3:22-23). 그렇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와 공활을 맞는다. 아침을 속절없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無禮)이고 하루에 대한 결례(缺禮)이다. 아침을 튜닝하자. 무슨 음(音)이 가장 적절할까? 우문(愚問)이다. 하루의 기준이, 일생의 기준이, 나아가 영원의 기준이 말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흔들리는 세상소리로 하루를 출발한다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으리라. 하늘소리, 말씀으로 아침을 튜닝하자. 어느 아침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아침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또 다른 아침은 내가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항상 있겠다고 하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아침은 왜 없겠는가. 모든 아침의 말씀은 예외 없이 그 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라고 요청한다. 18세기의 위대한 작곡가요 오르가니스트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는 그가 작곡한 악보 맨 위에는 J.J라고 썼고 끝에는 SDG를 적어 놓았다. J.J는 Jesu Juva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의 약자(略字)이며 SDG는 Soli Deo Gloria의 약어(略語)이다. 예수님이 그 출발의 근간(根幹)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곡(曲)과 연주의 유일한 목표였다.

초월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다. 초월의 나라가 방문한 임재의 세상도 영광의 세상이다. 초월과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삶에 튜닝 없이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조화를 이루기는 난망(難望)하다. 아침이 튜닝의 아침이 될 때, 아침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는 것이다.

습관→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창

에온, 습관에 대한 기존 행동주의적 이해 넘어선 다양한 철학적 의미 제기

보통 사람은 하루 수백 가지 행동을 습관적으로 한다.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 폰을 확인하고, 아침을 먹고, 이를 닦고, 일과를 시작하며, 커피를 마신다. 최근 자기계발 분야는 이러한 습관에 대한 관심으로 뜨겁다. 생산성 향상이나 다이어트, 재산증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어떻게 ‘게임화’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며(life hacks), 디자인(life design)해 이런 목적을 달성한지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과학적 배경은 다양하지만 습관을 연속된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습관이 가진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기계발 서적들이 말하는 습관은 사실 20세기 초의 B. F. 스키너, 클라크 헐, 존 B. 왓슨, 이반 파블로프 등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내용에 기초하

고 있다. 이들은 대상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같이 관찰 가능한 특성을 중요시하는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이들로, 습관을 좁고 개인적인 의미로 정의했다. 곧, 그들은 인간 또한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행동과 보상이라는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주의적 습관에 대한 개념은 현대 뇌과학에도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뇌가 가진 가소성(plasticity)에 의해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습관이 마치 뇌 영역 간의 새로운 연결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행동주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습관을 엄밀하게,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철학적 의미를 가진 습관을 단순한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다(A philosophical approach to routines can illuminate who we really are).

과거 철학자들은 습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과 사물의 특성, 특히 도덕성과 지성을 말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모두 ‘습관’으로 번역되는 헥시스



직여 공을 던지고 그 공의 궤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흠에게 인과론은 바로 습관에 의한 연상 작용이었다. 그는 언어, 음악, 인간관계 등 경험을 유용한 무언가로 바꾸는 모든 기술이 습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곧, 습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을 헥시스-에토스 두 개념 사용
이상적 아비투스(헥시스)는 기독교적 선 실행하는 것

(hexis)와 에토스(ethos)라는 두 개념을 사용했다.

헥시스는 친구로서의 친절함이나 탁자의 부드러움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지속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헥시스는 누군가가 ‘소유한’ 성격, 능력, 기질을 의미하며 그 어원은 그리스어로 소유권을 의미하는 에카이(ekhein)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사람의 성격이란 결국 그들이 가진 헥시스의 합이었다.

한편 에토스는 한 사람이 헥시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곧 에토스는 그가 가진 삶의 방식이자 보다 근본적인 인격에 해당한다. 에토스에 의해 도덕적, 지적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원칙이 만들어진다. 즉, 에토스를 바탕으로 헥시스를 갖고 닦게 되며, 여기에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습관에 대한 이런 관점은 덕을 갈고 닦는 것이 윤리적인 삶으로 가는 방법임을 강조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잘 맞아떨어진다.

천년 뒤 중세 기독교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헥시스는 라틴어 아비투스(habitus)로 바뀌었다. 고대 그리스의 덕 윤리학이 기독교의 도덕으로 바뀐 것처럼 이 용어 역시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됐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윤리학은 개인의 도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의 윤리적 성격은 신이 내려준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했다. 이 때문에 이상적인 아비투스는 기독교적 선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습관을 영적인 삶의 핵심 요소라 생각했다. 그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서 아비투스는 이성적인 선택을 포함하며, 따라서 참 신자는 이를 통해 영적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그는 버릇(consuetudo)이라 불렀다. 여기에는 신앙과 무관한, 비종교적이고 평범한 일상이 포함된다.

버릇은 연상과 규칙성만을 가질 뿐이지만 아비투스에는 참된 배려와 신의 뜻이 들어 있다. 버릇(consuetudo)은 ‘관습(custom)’과 ‘복장(costume)’으로 바뀌었고, 이는 중세 사람들이 습관을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말해준다.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이런 습관에 대한 고대와 중세의 해석을 더욱 확장했다. 흄은 습관이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는 습관을 모든 ‘정신이 그 작동을 의지’하는, ‘우주의 접착제(cement)’라 불렀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을 높이 던지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습관에 의해 우리가 꿈을 움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다. 흄에게 습관은 ‘인간 삶의 거대한 안내자’였다.

오늘날 우리는 습관을 그저 평범한 일상의 규칙적 행동이나 성향 정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습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만약 흄의 의견을 따른다면, 습관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습관에 대한 이런 과거의 관점은 흔한 자기계발 서적보다 우리에게 습관에 대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완전히 바꾸어야 할 진부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965-0009 (광고)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광고)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 1/4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시요.

가족이 '우상' 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켈라에 따르면, 우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 걸게 될 때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 성취 그 자체, 다른 이들의 칭송, 혹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 수치심, 사회적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로맨틱한 이성과의 관계도, 동료들의 나에 대한 인정도,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도, 아름다움도, 혹은 내 명석함도, 위대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대의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도, 심지어 종교적 사역에서의 성공을 위한 바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켈라 목사는 무언가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으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됐다고 정의한다.

한편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기독교는 이내 예수님이 불편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속단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눅14:27)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는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달리 우리는 길에서 사람들이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영적 헌신을 의미하는 편안한 은유일 뿐이다.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삶의 스트레스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문구점 주인이 연말 재고조사를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농담할 정도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hate)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눅14:26).

여름성경학교의 주제 성구로 이 말씀을 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 케이크 장식 글자로 쓸 리도 만무하다. 이 구절이 조금이라도 어디서 언급된다면,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이 전혀 말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이 말씀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적대나 경멸이 아니라 애착의 우선순위를

를 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C. S. 루이스가 이 구절을 두고 “두려워 떨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하다”라고 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옳은 말이다. 루이스의 표현대로 “자기 아버지를 쉽게 미워할 수 있는 남자,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 한 평생 몸부림친 여자라면 이 구절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시간을 별로 갖지 않는다. 특히나 이 구절만 절대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는 관점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가족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눅2:14)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마10:34-36).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에서 잠시 벗어난 빠진 부분이 아니라, 폭풍에 휩싸인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10:38-39)-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방식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예수님은 일말의 공감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죽은 사

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눅9:59-60).

장래에 제자가 될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눅9:61-62).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좋게 말해도 가혹하게, 나쁘게 말하자면 악랄하게 들렸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교집단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것, 사교집단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가족과 단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신도들에게 부모나 형제들과 연락을 끊으라고 하는 집단은 유해한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다 보니 1세기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운동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어부 제자들은 즉시 그물을 내팽개치고 그를 따랐다.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손질을 멈추고 “아버지 세배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막1:20)고 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가족과의 절연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물을 버리고 떠난 그 어부들은 다른 도시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하는 현대인과는 다르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업으로 내려온 조상의 전통과 스스로를 단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 앞으로 이어질 보이지 않는 세대를 위한 생계 수단까지도 포기하는 행위였다. 이것은 충격적인 반가족적 행위일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보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성경 이야기는 가족-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과 더불어 시작한다(창1:28).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창17:5), 그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창15:5). 또한 다윗에게는 그를 위해 왕조를 세우셔서 그의 아들이 영원히 왕좌에 앉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삼하7:4-17).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문화에서도 놀랄 정도로 당신의 직계 가족을 방치하셨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우리들의 삶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지난 4월 14-19일 동안 Augusta National Golf Course에서 열린 골프의 최대 경기 Masters PGA Tournament에서 타이거 우즈가 거의 11년 만에 다시 우승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고 열광케 하였다. 골프의 황제였던 우즈는 그동안의 부도덕한 생활과 11번의 부상, 4번의 척추 수술, 3번의 무릎수술 등으로 부상 종합병원으로 불리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나머지 10여 년 동안 골프시합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은 그의 골프 인생이 끝난 것으로 여겼다. 그러던 그가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 모든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11년 만에 이번 골프 시합의 최고봉 마스터스 게임에서 당당히 우승하면서 재기하고 다시 골프 황제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의 재기와 골프 황제로서의 복귀를 축하하고 그에게 수없이 많은 최고의 찬사를 쏟아 부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현 대통령, 골프 황제 잭 니콜라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등등 세상의 내로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기를 찬탄하였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컴백”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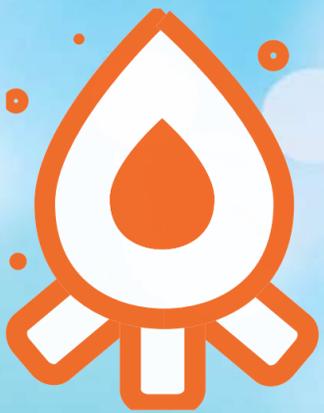
그러나 조던은 틀렸다.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의 일시적 복귀와 재기보다 더욱 위대하고도 영원한 재기와 복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기와 복귀이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 성도들의 재기와 복귀이다. 위대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은 모두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상태로 복귀하고 재기하여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된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였다(엡2:1-6; 빌3:20).

이것만큼 더 놀랍고도 위대한 컴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재기와 복귀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을 체험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들도 놀라지 않는다. 매우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왕권에 동참하여 이 땅을 다시금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현실적 기쁨이 되는 이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던 우리들의 영생하는 영혼과 흠으로 돌아온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육체의 부활까지 체험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생한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삶의 동력은 부활의 기쁨이며 그 소망이다. 이러한 우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즉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말씀에 일치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우리의 인격과 지식과 능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언제나 위엣 것 즉,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할 것을 추구하면서 올바른 학문을 수립하고 과학과 예술과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로 정착 확장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조국의 어두운 미래와 미국의 도덕적 영적 퇴락 앞에서 우리들은 새롭게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삶을 힘 있게 살 것들을 다짐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제40회 HYM 청년연합집회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1-2

2019.04.27-28
SAT-SUN 7PM

Orange County 한인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More Info Douglas Kim 목사
714-393-5135 | www.facebook.com/1999HYM
www.hym.cc



강사
Pastor Robert Oh
(오석환 목사)
Life Giving Ministry Director
캄보디아 선교동원가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대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때였다. 그러나 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만 아니고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된다고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성경적인 답은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백성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다.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100살에서야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힘든 과정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기근 중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목자들에게 우물들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그가 양보하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자 아비멜렉은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며 동맹을 요구해 오고 평안을 갖게 되었다. 그의 아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하여 집을 떠나 뱃단아람으로 피신을 갔다가 삼촌 라반에 의한 착취로 20년을 고생한 후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아들 요셉도 형제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 갔은 고생 다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

하는 일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광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광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뜻은 하늘은 그 지어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창조주로 말이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원어의 뜻인 ‘카보드’라는 말을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믿는 자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발전과 변형만 있다면 타락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좋은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것이 없다. 무슨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여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될까 말까하는 순간을 맞게 되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방법으로 한 번은 형통함

으로 한번은 곤고함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도제목 하나는 주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 뜻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곤고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과정도 그렇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수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강민국 목사

(미시안아한인교회)



비극적인 영웅인 세익스피어의 ‘햄릿’은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인간을 대변한다. 햄릿 왕자는 자신의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이 된 것을 알았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며 변민한다. 햄릿의 독백은 모든 사람의 고민을 대변한다. 사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사는 날 동안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라며 중얼거린다.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만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했다.

믿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아직도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왜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할까?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변화된 성도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

즐기면 검은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이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기도와 말씀과 선행으로 주님을 따르면 흰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이 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변화된 성도의 마음에도 이 두 가지 죄의 법이 공존하면서 일생 동안 싸우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신앙인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분투해야

인 방법과 신비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뉴스, 각종 사고, 부모의 훈계, 신실한 성도의 충고, 그리고 자연 재해와 양심의 소리 등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서 끊임없이 죄악 주위를 맴돌게 되면, 결국 탐욕과 죄악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성도는 세속 세계 속에 섞여 살지만, 죄악에 섞여 살서는 안 된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온갖 변명거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어떤 사정도 용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작은 죄악의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했다. 시인 윤동주는 일제치하에서 밤하늘의 유성처럼 살다가 간혹의 기독교 시인이자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한 국민 최초로 노벨 문학상 또는 평화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는 ‘서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히 다르다. 갈등하며 한숨짓던 바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친다. 지금까지 바울의 마음은 검은 구름 같은 어두움이었는데, 갑자기 햇빛이 쬐고 나오는 무슨 의미인가? 바울의 탄식은 믿음이 약해서나 자신이 죄악에 패배하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말이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이제 자신이 그렇게 죄악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다. 겨울에 태양 빛이 길게 안방까지 들어오면, 평소엔 보이지 않던 먼지 알갱이 하나 하나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들어가면 나의 죄는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의 괴수로라”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 율법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 그럴 때, 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한탄이 흘러나온다. “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인입니까?”라며 가슴 치며 아파하게 된다.

“갈등하는 신앙인” (로마서 7장 21-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다.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18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21절에 보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구구절절이 한탄한다. 그리고 바울의 입에서 참으로 비통한 장탄식과 한숨이 쏟아져 나온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토록 고민하며 긴 탄식을 토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성도도 죄의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이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선한 양심의 법과,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는 악한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다. 성도라고 할 지라도 그 두 가지의 법이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매우 괴롭다는 것이다. 체코키 인디언의 우화 ‘두 늑대의 이야기’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가 있다. 흰 늑대는 착한 늑대로서 친절과 담담함과 사랑을 대표한다. 그리고 검은 늑대는 욕심과 두려움과 증오심을 의미하는 나쁜 늑대란다. 그런데, 이 두 늑은 매일 치열하게 싸운단다.” 손자가 묻는다, “할부지, 그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네가 밥을 주는 그 늑이 이긴단다.” 이것은 성경과 매우 유사한 진리이다. 성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운다. 내가 화와 미움을 품고, 죄악을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고민과 한탄은 성도가 죄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어둔 그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민은 신앙인이 죄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은, 성도가 죽기까지 치러야 할 전투의 숙제이다. 성도가 죽기를 각오하는 전투태세를 풀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 실패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노정 중에 죄악 불감증에 빠져 기어코 파멸의 길로 간 발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나귀까지 동원해서 말하게 하셨을까? 이 사건이 비이성적으로 들리는가? 그런데, 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일반적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일군들 사이에 앉아서 불을 쬐다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그때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우는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통곡하며 울었다. 베드로는 투박한 뱃사람이고 일생을 거칠게 살아왔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칼도 빼어 들었던 상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닭 우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는 닭 우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던 것이다. 성도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3. 신앙인은 작은 죄도 슬쩍 넘기지 못하는, 살아있는 신앙

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부는 작은 바람”, 윤동주 시인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 한 줄기가 행여나 연약한 잎사귀를 다치게 하지 않는을까, 행여나 작은 바람이 잎사귀를 떨어지게 하지 않는을까 하며 고민했다. 그의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의 마음인 것이다. 참으로 우리도 내 영혼에 부는 작은 바람의 움직임, 작은 일생을 거칠게 살아왔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칼도 빼어 들었던 상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닭 우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는 닭 우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던 것이다. 성도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3. 신앙인은 작은 죄도 슬쩍 넘기지 못하는, 살아있는 신앙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 율법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 그럴 때, 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한탄이 흘러나온다. “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인입니까?”라며 가슴 치며 아파하게 된다. 하나님의 수준을 알면 알수록, 나의 수준과 추함의 정도를 깨닫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빛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깨닫는다. 무한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지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 같이, 신앙인의 거룩한 고민을 깊어지고, 가을 하늘보다 푸른 양심으로서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은 더욱 밝은 빛으로 채워지기 원한다.

(3면에서 계속)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가족 애착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에 관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족과 동족들이 그에게 보인 경악스러운 반응은 이상한 것이었다. 그만큼 그는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맞서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족들을 두고 복음을 전하려 다닐 때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 한 적이 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해 받들었으나 공생애가 시작된 후로는 더 이상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셨다. 가족들이 와서 밖에서 찾는다든 전갈을 받고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반문

하셨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눅8:21)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을 정의한다. 육신의 혈통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는 영적인 관계다.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님의 참된 제자요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의 생명을 켜져가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한다. 예수님만이 제자의 모든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

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렇기에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결론으로,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말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가족까지도 등쳐야 하는 희생을 요구

한다면 제자 되는 것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10:27) 주님께 맡겨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참된 주님의 제자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 물건을 쇼핑하듯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율리와 비슷하다. 영적생활에서는 백전백패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음에도, 세상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중심에서 신앙의 내용과 행태를 결정하

는가? 먼저는 그의 오신 목적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의원으로 서 마음과 육신에 병든 자를 구하시기 위함이었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알기에, 그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당연히 그런 존재들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에서이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 도시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 갈릴리촌사람들을 사용하셨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머리속에 세상의 생각이 짙은 사람보다 선

더 하고 있지 않소'라고 말하고 싶지만, 목사라는 인격 때문에 참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요구한다. 목사는 아마 예수님 수준을 들이대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상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 예수쟁이들이 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타종교에서는 도를 오래 닦으면 득도해서 도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요구하는 듯하다. 너희들은 왜 예수를 오래 믿는 데도 그 모양이나 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롭게 주님 모습 닮아 보려는 자신감이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16년 동안 한 목사가 목회를 했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목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여러 부분에서 더욱 갈등과 오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갈등과 오해의 중심에는 스승 되신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난 인격이 들어 있을 것이다. 지상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없듯이 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3장 28-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겁이 납니다. 이 죄는 어떤 죄인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이 구절은 성경난해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적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 역사한다고 모독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알세불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사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된 이적을 악령의 역사라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훼방죄에 대한 해석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독교인이 사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견해는 특히 히브리서 6:4-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신령한 자도 타락할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교리' 에 의해 성령훼방죄 범할 수 없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중생한 경우에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비침을 받은 것은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맛본 것뿐이며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로 잠깐 외항적으로 같이 나가다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의 특별한혜가 아닌 일반 은혜에 일시적으로 참여한바 된 것을 가리킵니다.

2) 이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에만 국한되는 죄라고 해석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 기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훼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Jerome, Chrysostom).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3) 아거스틴이나 루터파 학자들 중에는 성령훼방죄를 끝까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라보도의 조직신학 책에 의하면 "이것은 첫째,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며 둘째로 중생되지 못한 자라고 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님의 증언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고 악평하고 마귀의 사역으로 돌리는 자들의 특별한 죄이다. 이는 특히 거짓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과 신신학자들이 범하는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도 이 성령훼방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려운 해석이지만 루터파의 어떤 학자들은 중생한 사람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나,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기에 이 견해를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훼방죄를 범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와 주님의 참된 제자

-무익함과 부족함, 겸손한 은혜

다. 소비자 중심주의 신앙행태이며, 삶의 적극적인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적당주의 혹은 현상유지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자기 생각, 자기 일을 내려놓고 열심히 따라가는 이들이다. 어느 분야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첨경이 그 분야의 권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사학위를 받는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논문의 기초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필이나 감상문이 된다. 근거 있는 남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논문이다. 논문을 쓸 때 내 말을 내려놓고, 계속 남의 말을 근거 있게 인용하며 따라간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뭘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박사이다. 내가 이미 가진 지식으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빨리 받아들여 흡수하고 체화하고 익히고, 그 위에 새로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할 때 박사가 되는 것이다. 박사 학위 자체를 미화함이 아니라 잘 배움의 제자도를 말하기 위함이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세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생각이 든다. 제자들 열둘을 하나같이 뜯어보아도 별로 잘난 사람이 없다. 기껏 좀 배운 사람을 꼽는다면,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마태인데, 그도 실제 위치는 유대사회의 공적으로서 '왕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유대사회의 전도 대망한 젊은이들을 주님은 외면하셨을까? 실제로 바울같이 잘 나가던 사람 몇 명만 잘 변화시켰다면 복음의 확장성과 그 열매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 잡는 것이 때'라는 논리에 불과한 것일 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비밀을 볼 때는 우스스럼이 짝이 없는 것이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해야만 했

입견 없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기에 기꺼이 변화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이러한 전제 가운데 참된 제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더불어 제자들의 모인 교회의 본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의 내용처럼 우리자신도 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자각을 쉬지 않는 것이다. 주안에서 성도의 만남이 무슨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된다. 여기서 출발하면 교회는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가 깊어지는 삶을 체험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질 것이다.

주님이 부르셔서 모였는데, 모여 보니 서로 별 것 아닌 인생, 그저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배운 것,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제일 앞세우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세상에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차별의 기준을 그대로 가진 채로도 그 모든 세상의 차별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로 묶여지는 곳이 교회이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이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이다.

부족함에도 주를 따르는 제자

전도를 위해 사람을 만나면, 흔히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인격이 문제다. 예수 믿는다면 어찌 저럴 수가 있나"라는 말이다. 듣다가, 당장이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당신인격은 어떻소. 그대보다는 아마 나은 거요. 최소한 당신이 가진 인격적 잣대에다가 우리 하나

우리의 본질은 결코 도인이 아닌, 도인이 되라고도, 될 수도 없는,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사실이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이며 제자의 삶의 세계관이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타종교에서 말하듯 계급이 높아지듯이 목에 힘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욱 더 자기의 죄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여전히 스스로 득도할 날은 멀지만 한 것으로 말한다. 정말 신앙 좋다는 분을 만나보면, 늘 그분의 삶에 배어나오는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이 뭘 제대로 한 게 있나"라는 말의 단순반복일 뿐이다. 아 이 예수향기를 어떻게 설명하라! 이것이 예수 신앙인격의 비밀이며 본질이다. 수고하고도 무익함을 자랑하는 제자의 비밀이다.

오직은혜, 예수향기, 회복

오직 은혜로만 인격도 바뀌어지고 특유의 향내가 나게 된다. 예수향기이다. 예수향기는 빛나는 금빛 십자가 목걸이에 근거하지도 산속에 들어가서 모진 고행을 함으로 얻어짐도 아니다. 예수 향기는 또한 목이 끈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 직업자들에게서 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며 통회 자복하는 그 정결한 심령위에 놓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가진 인간인격의 기준을 가지고서 말하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신앙 내놓아도 사람 좋다는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목사로서 인격적인 부분을 말할 때 부끄럽지만 툭 터놓고 말한다. "저는 아직 많이 떨었습니다. 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소리 들어도 그걸 잘 소화 못해서 잠들지 못하고 끽끔대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예수님 닮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충만할 때나

다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디나 문제가 있으니 그냥 살자? 이런 또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 해법이 되는가? 그것은 단지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것이다. 참된 해법이다.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죄인됨에서 출발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천하에 약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럴 정도로 자기회개에 강한 성도와 목사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기는 멋진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가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담임목사 청빙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춘 한인 성인예배 EM(영어권 예배)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명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으로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으로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실 분.
- 2.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한 분.
- 3.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 4. 미국내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서류

-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신앙강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 3. 학위증명서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서)
-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 (확인 할 수 있는 전화 및 e-mail 주소 기입)
- 5. 최근 설교 2개 (CD/DVD 또는 동영상주소)

접수마감 : 2019년 5월 31일

제출처

e-mail이나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청빙위원회 e-mail : yesokpositive@gmail.com
• 보내실 곳 :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 청빙위원회)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문의 : 청빙위원회 정천의 장로 (Tel 408-262-0177)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pc.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족(BRAHUI)



아프가니스탄의 25만 브라후이족은 레지스탄(Registan) 혹은 "모래의 땅"이라고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남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근처에 놓여 있으며 브라후이족의 주된 집단이 여기에 거주한다. 브라후이는 29개 부족의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족, 발루치족과 구별된다. 푸쉬툰족과 발루치족은 인도-이란계 언어를 사

용하지만 브라후이족은 드라비다어(Dravidian)를 사용한다. 이것은 언어학자들에게 일종의 수수께끼로 여겨지는데 이유는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은 대부분 1000마일 이상 떨어진 남부 인도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브라후이족은 1600년대에 힌두 왕으로부터 권좌를 빼앗았을 때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의 지배 아래에서 이 연합체는 절정에 이르렀다. 29개의 부족들은 칼랏의 브라후이족(the Brahui of Kalat)에게 연합하면서 총칭이었다. 이중 8개의 부족들이 이루어진 한 그룹이 진짜 브라후이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전체 브라후이족 인구의 십분의 일을 조금 넘는다.

삶의 모습

브라후이족에게는 복수의 법 이외에는 법이 없다고 하며 강한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이들의 저항력은 점차 커져갔다. 브라후이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며 그들의 가축 때를 위한 물과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들은 45마일 이상 떨어진 우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동한다. 많은 이들은 또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란으로 이주했다. 고산지에서의 겨울은 얼음이 얼고 춥다. 그런 계절에 브라후이족은 평야에서 산다. 이들은 2-3월에 새끼 양들이 태

어난 후에만 산지로 간다. 브라후이족은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을 "칼크(khalks)"라고 불리는 협동모임으로 조직했다. 각 "칼크"는 그들의 가축 때를 한 무리로 합하고 전문적으로 상주하는 목자의 보호 아래 둔다. "칼크"는 브라후이족의 경제에 매우 유익하다. 상주하는 목자로 하여금 약 500마리의 양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마을 남자와 성인이 된 자식들은 마을의 농장에서 일해 밀을 얻게 되고 또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한 다른 캠프와 가축 때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른 브라후이족들과 자유롭게 교환한다. 브라후이족은 칼크(khalks)라고 부르는 개념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목자가 났으며 한꺼번에 양을 칠 수 있는 최대 숫자를 알게 됐다. 이들은 또한 양들이 작은 그룹으로 있을 때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으며 이런 조건에서는 흠여져서 방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리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칼크를 나누어서 분기시키고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게 된다. 브라후이족의 결혼은 가족 간에 중매로 이뤄진다. 친척간의, 특별한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 형제의 딸과의 결혼이 선호된다. 그 커플의 바람도 고려된다.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갖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출부담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한적이다. 이혼은 브라후이족에게는 거의 드물다. 이상적인 가족은 결혼한 아들들과 함께 사는 그들의 부모로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제들은 장남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재산을 함께 소유하며 살아간다. 브라후이족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단위는 부족이다. 한 부족의 구성원은 부자승계

를 통해 그리고 정치적인 연합으로 결탁되었다. **신앙** 실제로 모든 브라후이족들은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들은 이슬람 신앙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 즉 기도, 금식,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과 "알라하는 유일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고백, 메카로의 순례를 고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족들 사이에서 일하는 사역단체가 없다. 또한 브라후이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브라후이족의 거친 유목민적 삶의 스타일에 거친 순응하고자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스리랑카 폭탄 테러' 개신교 교회도 피해...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21일 발생한 8건의 연쇄 폭탄 테러 사망자가 최소 290명, 부상자가 최소 500명으로 늘어났다. 숨진 외국인인 최소 32명이다. 8건 가운데 6건이 자살폭탄 테러로 밝혀졌고, 스리랑카 당국은 용의자 24명을 체포했다. 테러 배후로는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내셔널타우히트자트(NTJ)'이 지목됐다. 스리랑카 정부는 추가 테러를 우려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은 8건의 연쇄 폭발 가운데 6건은 자살폭탄 테러였다고 스리랑카 당국의 과학수사 전문가 아리아나다 웨리안가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웨리안가는 "오전에 호텔 3곳과 교회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폭발은 7명의 자살폭탄 테러범이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콜롬보에서는 성 안토니오 성당 1곳과 특급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 비슷한 시간 네곰보의 성 크리스티안스 성당과 바티칼로아의 기독교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오후에 콜롬보 인근에서 추가 발생한 두 건의 폭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폭발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 사건 당시 정황과 목격담들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네곰보의 성 크리스티안스 성당에 갔던 달립 페르난도가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와 마주친 이야기를 전했다. 페르난도는 "30살쯤 된 남자는 순수해 보였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바로 폭탄 테러범이었다"면서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돼 성당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 콜롬보 시나몬그랜드 호텔에서 한 현지인 남성이 아침에 뷔페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중 등에 맺힌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기폭하지 않은 폭발물도 연이어 발견됐다. 테러범들이 훨씬 큰 규모의 범행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테러 당일인 지난 21일 밤늦게 사체 폭발물이 콜롬보 반다라나야케 공항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해체했다. 콜롬보의 한 버스터미널에서는 기폭장치 87개가 발견됐다. 경찰 폭발물처리반이 교회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설치된 폭탄을 해체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테러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NTJ의 소행으로 파악됐으며 국제 조직도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대변인적인 라지타 세나라트네 보건장관이 밝혔다. 테러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은 NTJ의 지역 조직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24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FP통신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국가(IS)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는 입김이 큰 불교계는 2004년 아예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었다. 바로 극우 성향의 민족유산당이다. 내전 기간 평화협상 때마다 종족 및 종교 갈등을 선동해 왔던 민족유산당은 내전 이후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타깃으로 삼았다. 2012년 민족유산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인물들이 모인 분파 조직인 '보두발라세나(불교도의 힘)'는 최근 기독교 및 이슬람교 혐오를 조장하고 교회와 모스크를 공격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이슬람교도는 전체 인구의 9% 정도다.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스리랑카로 넘어온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지난해엔 극우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를 무차별 공격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전체 인구의 7%가량 되는 기독교도 역시 독립 이후 꾸준히 박해를 받아 왔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제국주의 통치 시기에 기독교가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 독립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가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타 종교에 배타적인 것은 제국주의 시절 탄압 받은 데서 비롯됐다.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섞여 있는 기독교는 최근 종족 갈등을 중재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불교도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면서도 식민지배의 경험 때문에 기독교에는 공통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기독교 운동을 하던 승려 간고다베라 소마가 2002년 러시아를 방문했다 숨진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 2003-2004년 스리랑카의 여러 교회가 불교도들의 공격으로 소실된 것은 대표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200개의 성당과 교회를 대표하는 스리랑카 기독교연맹은 지난해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사건 등

국에 알렸지만 무시됐다.

스리랑카 테러, 뿌리깊은 종교 갈등 가능성

스리랑카에서 21일 발생한 8건의 연쇄 폭탄 테러는 배후가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뿌리 깊은 종교 갈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소수종교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종교 및 종족 갈등으로 혼란을 겪어왔다. 인구 2100만명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교계 싱할라족(70%)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11%)의 26년간 내전은 대표적이다. 독립 이후 권력을 독점한 싱할라족이 차별정책을 취하자 타밀족은 점차 분리투쟁에 나가기 시작했다. 83년 타밀족이 싱할라족 군인 몇 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 싱할라족은 전국적으로 타밀족 1000여명을 학살하는 것으로 복수했다. 이후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로 대표되는 타밀 반군은 폭력적인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무장충돌과 휴전이 교차되다가 2009년 정부군이 타밀 반군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브하카란을 사살하면서 내전이 종결됐다. 내전으로 10만여명이 숨지고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정치가 입김이 큰 불교계는 2004년 아예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었다. 바로 극우 성향의 민족유산당이다. 내전 기간 평화협상 때마다 종족 및 종교 갈등을 선동해 왔던 민족유산당은 내전 이후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타깃으로 삼았다. 2012년 민족유산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인물들이 모인 분파 조직인 '보두발라세나(불교도의 힘)'는 최근 기독교 및 이슬람교 혐오를 조장하고 교회와 모스크를 공격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이슬람교도는 전체 인구의 9% 정도다.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스리랑카로 넘어온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지난해엔 극우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를 무차별 공격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전체 인구의 7%가량 되는 기독교도 역시 독립 이후 꾸준히 박해를 받아 왔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제국주의 통치 시기에 기독교가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 독립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가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타 종교에 배타적인 것은 제국주의 시절 탄압 받은 데서 비롯됐다.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섞여 있는 기독교는 최근 종족 갈등을 중재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불교도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면서도 식민지배의 경험 때문에 기독교에는 공통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기독교 운동을 하던 승려 간고다베라 소마가 2002년 러시아를 방문했다 숨진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 2003-2004년 스리랑카의 여러 교회가 불교도들의 공격으로 소실된 것은 대표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200개의 성당과 교회를 대표하는 스리랑카 기독교연맹은 지난해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사건 등

이 8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소수인종과 종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소수종교를 향한 테러 증가가 역부족이다. 자칫 이번 연쇄 테러가 스리랑카의 종교 갈등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대만, 아시아 복음화 새 중심으로 부상

대만교회가 21세기 중국 등 아시아 복음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만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은 140만명으로 전체 인구 2355만명 중 5.9%에 해당한다. 대만교회는 향후 10년 동안 복음화를 15%를 목표로 적극적인 전도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수도 타이베이 화평체육관에서 열린 '파이어 콘퍼런스' 집회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드러났다. 대만 신터우회총회(行道會聯合會·총회장 양용만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연인원 4만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성령의 불을 지폈다.

파이어 콘퍼런스는 12년 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부터는 체육관을 대체해 국제 집회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자체 성회를 개최한다고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대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한국보다 20년 빠른 1865년 6월이었다. 영국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 맥스웰이 활동하며 선교의 문을 열었다. 1885년 교육학을 공부한 조지 에데 선교사가 타이난에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육 선교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장로회 조지 L 맥케이 선교사는 대만 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세계기도정보'에 따르면 대만교회의 부흥 요인은 기도와 전도였다. 대만의 대형교회와 오순절교회 등이 이를 주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기적으로 대만 성회와 아세아성도 방한성회 등을 개최하며 영향을 끼쳤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참사 20주년...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겨준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교 총기참사를 겪은 생존자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컬럼바인 총격 사건은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교 재학생인 에릭 해리스(당시 18세), 딜런 클리블드(당시 17세)가 교정에서 총탄 900여 발을 무차별 난사,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사건을 일으킨 2명은 이 학교 도서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사 당시 15살이었던 어맨다 듀란(35)은 아



이 8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소수인종과 종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소수종교를 향한 테러 증가가 역부족이다. 자칫 이번 연쇄 테러가 스리랑카의 종교 갈등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그날 개인적인 학교 문제로 상담사와 약속이 잡혀있었다. 도서관에서 상담사를 기다리던 그녀는 무언가 찌릿 찌릿 하는 소음을 들었다. 그리고는 2명의 중무장한 학생들이 도서관에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전한 곳을 찾아 재빨리 움직였다.

어맨다 듀란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내 바로 옆에 있던 여학생을 총으로 쏘았을 때 '광' 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 순간 다음 차려는 내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공포의 순간을 회상했다. 당시 목숨을 건진 그녀는 참사 이후에도 총기사건이 잇따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듀란은 "지난 19년을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다"며 "(총기 사건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상해한인교회, 1919년 자리잡은 터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의 구심점이 된 1919년 상해한인교회(중국어 표기는 上海鮮人教會) 터가 11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의 정확한 위치는 지난 100년 동안 역사학계의 난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발굴로 상해한인교회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 상하이 지하철 2호선 동남정루역에 내려 500m쯤 북쪽으로 걸어가자 동서로 지나는 베이징동루(北京東路)가 나타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길 건너편에 빨간색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베이징동루 280호, 바로 100년 전 상해한인교회가 있던 자리다. 1900년대 주소는 베이징루(北京路) 18호였다. 교회는 1920년대 말 철거됐고 1931년 중국 염염은행이 7층 높이의 석조건물을 세웠다.

베이징동루는 1843년 상하이 개항 후 개발이 시작됐다. 지금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개항 초기 만들어진 도로와 골목이 남아있어 당시 지도로도 교회가 있던 자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해한인교회는 1919년 3월 초 이곳으로 옮겨왔다. 건물 주인은 미국장로교 출판사인 미화서관(美華書館)이었다. 출판사 건물은 3층 높이에 너비만 27m에 달했다. 정문 왼편엔 '로리기념교회'가 있었다. 상해한인교회는 이 교회를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 공간이 넓었고 미국과 영국 공동조계지에 있어 일본 경찰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교회 위치는 이해연 연세대 신학과 객원교수가 확인했다. 이 교수는 미화서관과 상해한인교회의 주소가 '베이징루 18호'로 같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의 고지도들을 뒤져 미화서관의 위치가 표기된 1884년 지도를 찾았다. 이 교수가 입수한 상해현성상조계전도(上海縣城廂租界全圖)에는 상하이 전역의 큰 건물 이름이 기록돼 있다. 1875년 베이징루에 터를 닦은 미화서관도 이름을 올렸다. 국내 역사학계는 1921년 초 상해한인교회가 옮겨간 연안루의 삼일당까지는 위치를 확인했다. 삼일당은 프랑스조계에 있었다. 반면 1919년 상해한인교회 터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많은 학자가 프랑스조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것도 혼선을 더했다.

정통과 이단

1000년의 중세를 지내는 동안 교회는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 전역에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도 하였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일들에 대하여 강력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교회가 이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되었다. 이미 카타리파를 이원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교리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가난한 삶을 강조하면서 단일성을 파괴하는 새로운 분파가 출현하였다. 교회는 카타리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도전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세 가톨릭교회가 상대를 정죄할 수 있던 것은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왈도파의 기본사상이 정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단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정통을 결정하는 절대적 규범은 성경 말씀이다. 교회 역사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면밀하게 해석하게 하였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신학논쟁은 잠시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 사실이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독교론 논쟁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역사적 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확립된 진리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교회의 정통이 세워졌지만 그 후로 정통은 이단의 출현을 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단은 정통을 거부한다.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항목에서 교회는 정통은 이단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중세교회가 왈도파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을까?

피터 왈도와 왈도파

중세시대에 등장한 왈도파(the Waldensians)는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1205)라는 인물과 연관을 맺고 있다. 왈도는 프랑스 리옹에서 성공한 상인이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인 1170년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부유한 삶을 살던 그가 모든 재산을 정리한 뒤 청빈의 삶을 살기

로 작정한 것이다.

역사자들은 왈도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몇 가지 이유를 제안한다. 그 당시 유력한 시민의 죽음을 목격하였다. 4세기에 거지의 삶을 살았던 알렉시우스(Alexius)의 전설과 관계된 방랑시인의 노래를 들은 후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것이었다.

왈도는 즉각 청빈의 삶을 실천하였

다고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왈도파의 입장에서 번역된 성경이 필요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들의 신앙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암송하길 원했던 것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교회를 대항하여 자국어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외쳤다. 성경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지속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왈도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을

하는 가톨릭교회는 왈도파를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2세기에 시작된 왈도파 운동의 개혁정신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을 위해 성경을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왈도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와 절대적인 세력을 지닌 체제를 대법하게 도전하였다. 또한 교

통해 확립된 기독교와 감바도기안 신학자들이 의해서 형성된 사위일체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후반부 9-13은 중세교회의 중심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혁정신을 분명히 담고 있고, 14는 그들이 국가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귀한 자료를 소개한다.

1.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12조항의 모든 내용을 믿으며, 이와 모순되는 것을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우리는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3. 성령은 거룩한 정경이다. 4. 성령은 전능하시고, 지혜와 선이 무한하며, 선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된 것이다. 5. 하나님은 옛 선조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율법, 불의, 연약함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렸으며, 그리스도가 오시어 율법을 완성하셨다. 6. 성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는 우리가 어떤 선함도 없는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는 진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다. 7.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우리의 목자, 변호인, 희생제물, 제사장이 되신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이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8.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와 성부 사이에 아무 중보자나 변호인이 없다.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분이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자신들의 육체가 부활할 심판 날을 기다리고 있다.

9. 이후 세상에는 두 장소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장소이고, 다른 한 곳은 멸망 받을 자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이다. 전자를 낙원, 후자를 지옥이라 한다. 우리는 거짓된 적 그리스도가 지어낸 연역을 부인한다. 10. 인간이 지은 모든 고안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우리는 축일,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에 육체를 학대하는 일 등과 미사를 혐오한다. 11. 적 그리스도에게서 온 모든 인간의 고안물들을 미워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다. 12. 성례는 성물을 상징하며, 불가시적 축복의 전형이다. 이러한 상징이란 형식이 신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이런 상징을 소유하지 않은 신자도 구원을 받는다. 13.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가 없다. 14. 세속적 권력을 존중하고 복종하며 법을 엄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2)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만 아내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팔 두 땀은 수녀원에 보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중심에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의 변화된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았다. 1173년경부터 그와 마음을 같이하던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왈도는 주로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에 틀림이 없다.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당시 가톨릭교회가 카타리파의 출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왈도파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교황에게 헌정했다. 그 당시 성경을 교회의 전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교황 알렉산더 3세는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

처음 왈도파에 속한 평신도들이 방

회로부터 떨어져나갈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가하였다.

왈도파 고백서

역사적 관점에서 왈도파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무엇보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도미니크와 프란시스 탁발수도회를 공식으로 인정할 배경이 되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각

이단 정죄된 왈도파는 종교개혁과 일치된 사상 가져... 위그노와 연합 청빈의 삶, 자국어성경번역 주장, 고백서는 중세교회 중심교리에 도전

설교하였다. 청빈의 삶은 왈도파에 속한 자들의 기준이 되었다. 이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 임무를 다하다보니 방랑설교를 행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회개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랑설교를 실시할 때에는 방관하였지만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자 그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그들은 교황에게 설교 허락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직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설교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얼마까지도 상황이 바뀌었다. 대주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교를 금지시키게 되었다. 결국 가톨릭교회는 1184년에 개최된 베로나공의회에서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 후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고, 깊은 골짜기와 높은 계곡을 찾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다. 정통을 주장

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개혁신학을 따르던 프랑스의 위그노와 연합하였다. 이와 같이 왈도파는 초대교회 교부와 칼빈의 종교개혁 사이를 잇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1120년에 작성한 왈도파 신앙고백서(The Waldensian Confession of Faith)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요약한 명확하게 접할 수 있다.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 1-8은 왈도파가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 양테론, 양자론 등의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니케아 신조를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section,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성경도 신앙(76)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6)반전론자들의 비성경적 관점 평가

국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기만이다. 반전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독교 원리로 간주하는 것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펠라기안주의(Pelagianism)의 잘 알려진 오류이다.

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이단이다. 이렇게 반전론자들의 관점은 거의 성경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복음의 목적과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관점 위에 서 있다.

반전론자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 가지는 전체 개념은, 기독교란 사랑의 메시지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기독교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는 문제이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삶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랑의

만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3:19). 우리는 자신의 신학과 국가 질서와 정부에 관한 정제 관점을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서 취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관한 그릇된 관점이나 부적절한 관점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통과시키는 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그릇될 것이고, 그들이 결정한 것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우리 신학과 신앙, 국가 질서는 따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안목에서 사도들의 신앙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과 신앙, 국가질서는 성경의 안목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교회와 국가 관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3장에 성구 제시돼

품격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거의 모든 반전론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전론자들은 그릇된 전체 입장의 한 부분이며, 십자가의 교리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결구된 것이다.

이 반전론자들의 입장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람들의 행위와 같은 수준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반전론자들은 히브리서가 표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나 비극이나 가공스러운 실수로 간주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영광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런 기초를 가진 반전론자들은 불가피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죄가 무엇인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부나 국가에 대해 말하는 사고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지만 하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좋은 길로 돌아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

7. 성경에 의존하는 교회와 국가

1)명확한 근거 제시의 불가능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정치의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후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어떤 국가와 교회 사이의 연합의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신약성경에는 로마카톨릭주의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에라스투스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를 주도한다든지 하는 개념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다. 로마서 13장의 본문이나 디모데전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발견할 수 없다.

로마서 13장 1-7절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준 권고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 있든지 모든 교회의 지체 각 개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다. 사도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본문들은 각 개인 신자가 국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만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로마제국의 세력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로 로마 대제

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작은 소그룹으로 함께 모였다. 로마는 당시에 이교적인 세력으로서 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황제 숭배 개념을 도입해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할 것을 요청할 때였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어떤 연합, 또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어떤 동맹이나 협동에 대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가와 교회를 잇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 문을 열어놓는 말씀이 아니다. 로마카톨릭교회나 프로테스탄트교회의 경우에서나 다 마찬가지다.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초에 로마제국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일은 콘스탄틴 황제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으로 가야 한다. 23장에 국가 행정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경 참고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

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 참고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를 먼저 다루었는데, 그 참고구절로서 로마서 13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이 인용되고 있다. 제 3항에서 그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은 국가의 행정관이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국가 행정부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할 권한을 스스로 취할 수 없으며, 하늘나라 열쇠를 맡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질서를 유지하여 교회 안에서 연합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이 억제되게 하고 예배와 관정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들과 악습들이 예방되고 개혁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결정되고 집행되고 준수되도록 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이다.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교 회의들을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무엇이든지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대비하는 권한이 위정자에게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서민의 아버지 엘리사

참고 성경: 열왕기하 1-9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우상에 빠진 악한 왕이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바알세불에게 물어 보려 사람을 보내다 엘리사에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야단맞고 죽는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자리 물려주고 승천하다. 엘리사는 주로 아합 등 상위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했다면 엘리사는 아래로 임하여 백성들을 돌본 선지자였다. 넘치는 기쁨을 받은 과부(4:1-7), 아들을 얻은 수넵 여인, 해독의 이적, 보리 떡 이십 개의 기적,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떠오른 도끼, 하나님의 군대로 도망친 아람군대로 아이를 잡아먹을 극심한 경제공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다(6:19, 7).

사랑하는 주님!

사역자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음에 안심이 됩니다. 크게 나라도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도 다 각기 돌봄이 필요하여 다른 사역을 시키십니다. 절대 우열도 비교도 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명임을 깊이 명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드러낸 서민의 아버지 선지자입니다.

어느 일 어느 곳에 보내어졌어도 떨어진 곳의 주님의 백성을 돌봄을 사명의 분복으로 감사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작든 크든, 도시건 시골이건, 떨어진 곳을 분복으로 알고 성령행진으로 충성케 하시니 감개무량 합니다

hee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3>뉴욕망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라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중동), (917)373-3411 46-04 162 St., #2,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50 청년성경공부: 오후 3:20(토)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본질(本質)

한 달여 간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와 단절이 되었다. 이전에도 두어 번 그랬기에 무엇인가 단단히 오해가 생겼거나 본의 아닌 실수가 있었나 보다는 생각으로 되짚어 봐도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웠다. 어제 모임에서 오랜 만에 만나 그 이유를 들으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자초지종을 따지게 되면 또 다른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과를 함으로 일 단락이 되었으나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상대에게 말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나는 듣지

못한 말을 그가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화단이 생긴 것이었다. 그의 호의를 받으며 나는 분명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호의를 베풀 그의 기대에 미칠 만큼 반응하지 못하고 그가 들을 만큼 분명하게 감사를 전하지 못한 내 탓이라 여겨 사과를 했으나 찜찜한 여운을 지워내려면 이제는 내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친구(親舊)란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을 일컫는 까닭이다. 가까운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본질은 이해와 양보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지금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인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의 죄를 위해 가까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허다한 죄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임을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

고 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오해하거나 그것을 찜찜하게 여기는 것 모두 진정한 친구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친구는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本質)을 사전은 본바탕 또는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의 독자적인 성질이나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가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 8).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면 사람도 사랑이어야 한다.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본질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교

회가 본질을 상실한 까닭이다.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그러질 못하니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 교회를 잠식해가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풍자가 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지적이다.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외쳐야 될 교회와 교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라는 이런 지적이 풍자(諷刺)보다 더 치명적인 사실이 된 이유 역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본질을 벗어나 창조주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죄 된 사람의 시작이었듯 사랑도 친구도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어 미움과 원망과 질투가 자라고 커져 살인에까지 이른다. 친구 사이에도 양보와 이해는 뒤로 밀려나고 모순과 형식이 더 중요해진다. ‘내로남불’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것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탓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며 되돌아볼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겐세

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본질에서 이탈하려는 육신의 유혹을 떨쳐내시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며 힘겨워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잠들어 있다.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동참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 한 시간마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의 잠을 자게 되며 본질에서도 어긋나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시대에 대해 목표는 있으나 거기에 이를 길이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명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에 이르는 비결이며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 사람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있다. 이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hanmac@cmi153.org

“주여, 주의 이름이면!”

제 36차 C&MA한인총회 개막

제 36차 C&MA한인총회(감독 백한영 목사)가 지난 22일 저녁 뉴욕어린이양교회(박윤선 목사)에서 시작했다. 한편 감독선거는 후보 조현배 목사(시카고 한인서부교회 은퇴)가 2회에 걸친 투표에서 2/3 찬성을 얻지 못해 신임 감독 선출은 무산됐다. 위원회는 백한영 감독을 1년 더 유임시키고 1년후 다시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이라는 표어와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다”(눅10:17)이란 주제로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백한영 감독은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또 총회 개최지 뉴욕의 동부 지역회장 이지용 목사(뉴욕셋세마네교회)는 “C&MA한인총회가 종교 다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영혼구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군사를 배출하는 교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첫째, 성령 안에서 하나되기 둘째, 사랑으로 하나되기 셋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강조했다. 내빈소개에 이어 최일식 목



제 36차 C&MA한인총회가 22일 저녁 뉴욕어린이양교회에서 개막돼 개최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KIMNET 대표)의 만찬기도 후 어린이양교회가 준비한 푸짐한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 후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 개최예배는 박윤선 목사와 어린이양교회 찬양팀의 찬양 후 한인총회 발자취 영상을 상영했으며 이어 임병철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다. 임 선교사는 몽골에서 17년을 사역하고 은퇴했다. C&MA한인총회는 몽골과 북아프리카, 대만, 터키, 키르키스탄, 싱가포르 등에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협력선교사(10명)도 있다. 어린이양교회 찬양팀의 찬양 후 테리 스미스 교회사역부 부총재가 설교했다. 스미스 목사는 “Jesus, No Other Name”(

행4:8-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며 모퉁이들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교회를 지속시키신다”며 예수 이름만이 갖는 힘과 권세, 능력에 대해 강조했다. 설교 후 총대들은 실행위원회로 모였다. 둘째 날은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총재보고, 감독보고,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위원회 보고, 지역회 보고 등이 진행됐다. 오우에는 최재원 몽골 파송 예정 선교사의 간증과 회무가 계속됐으며 저녁집회는 서철원 목사(얼바인헤브론교회)가 설교했다. <10면으로 계속>



강원산불피해 미주 연합후원회가 결성되고 후원모임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아래쪽 네모칸은 4월 11일 JJ그랜드호텔에서 미주연합 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강원 산불피해 미주연합후원회 결성 모금운동 전개...한기홍 총회장 1만 달러 쾌척

최근 한국 강원도에 불어 닦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남가주 교계와 사회 일반단체들과 동포들이 하나가 돼 강원재난피해미주연합후원회(Kangwon Disaster relief support of Korean American, 총회장 한기홍 목사)를 결성, 구호성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18일 정오 용궁 식당에서 열린 연합후원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대회는 이병도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돼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홍 목사, 남가주 목사회장 김관진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박사 등의 인사말이 있은 후 한기홍 후원회 총회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 목사는 “우리조국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특별히 이번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란 민족애를 갖고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회가 결성됐다. 모금하는 과정부터 전달될 때까지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은 “사순절 기간에 강원도에 대화

재와 이재민 발생했다”며 “미주장신대에서는 경건회 시간에 모금함을 마련해놓고 모금운동 하고 있다. 교계 각 기관단체와 연대해서 강원이재민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구 부위원장은 가두모금계획을 발표하고 최광철 부위원장은 성금모금운동은 5월 18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금행사는 한인단체와 교회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월 20일 시작한 가두모금 행사는 4월 27일(토), 5월 4일(토) 등 3회에 걸쳐 펼쳐지며 성도들과 동포들이 이번 가두모금행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에는 JJ그랜드 호텔에서 미주연합 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린 바 있다. 추진위원장 이병만 장로는 “앞으로 5월 18일까지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우편 혹은 은행 계좌를 통해 구호성금을 접수한다. 한기홍 총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전액이 투명성 있게 이재민 구호활동 및 재난 복구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미주연합후원회장으로 위촉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산불피해복구 성금 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성금은 우편 혹은뱅크오브호프 구좌(6400-271-31)로 보내면 된다. 성금 후원자는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 보내는 곳은 Kangwon disaster relief support of korean american 6742 Sepulveda Blvd, VanNuys CA 91411이며 후원금을 보낼 때 Pay to the order에 KWDS를 기입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 신임총장 폴 퍼거슨 박사 선출 4월 10일 이사사회서 만장일치로



아주사 퍼시픽대 학교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이사회 이사사회는 존 윌레스 총장의 후임으로 폴 퍼거슨(Paul Ferguson) 박사(사진)를 17대

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퍼거슨 신임총장은 바이올라 대학교 과학기술보건대학장을 역임했고 인디애나 주먼시에 위치한 볼스테이트 대학교 총장과 메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퍼거슨 총장은 UC 데이비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폴 퍼거슨 총장은 7월에 취임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거룩한 산제사’ 강사 오석환 목사 HYM 20주년 집회 27, 28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서



HYM 대표 더글러스 김 목사

HYM(대표 더글러스 김 목사)가 주최하는 제40회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27(토)과 28일(주일) 2일 동안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14381 Magnolia, Westminster, CA)에서 열린다.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신복경 식당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거룩한 산제사’(롬12:1-2)라는 주제로 캄보디아 선교동원가 오석환 목사가 인도한다. 더글러스 김 목사는 이번 집회 주제에 대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하게 됐다”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집회는 찬양 40분, 말씀 50분, 기도 25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찬양은 HYM스텝 국중현 형제가 인도한다. 한인디

아스포라 1.5세 사역자인 강사 오석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해오고 있다. 캄보디아어로 번역하는 출판사역 및 워싱턴퍼런스 CD 제작, 현지 목회자 훈련, 제자전도훈련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느헤미야리더십’, ‘Prayer Driven Life’, ‘히어링’ 등의 책을 저술했다. 지난 1999년에 1회 집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집회를 열어 올해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한 HYM은 남가주 교회들이 청년 공동체의 연합과 영적각성 및 헌신을 통한 영성 부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더글러스 김 대표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한마음으로 찬양드릴 때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게 되고 오석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왜 내가 살아야하고 삶의 목적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393-5135 더글러스 김 목사. <박준호 기자>

남가주진명동창회 개교기념 제12회 보수연행사

남가주진명동창회 개교 113주년 기념을 위한 한국의 전통을 살린 진명의 날 제12회 보수연행사가 지난 4월 6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든스위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보수연행사는 특별히 고종의 마지막 황손이신 이석

총재(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내외가 참석해 전통행사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보수연행사는 칠순(57회 졸업)과 팔순(47회 졸업)의 생신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25명의 주인공들이 참석했다. 한국과 타주에서 칠순을 맞이한 57회 동문들이 먼 길을 마다하

지 않고 윤순호 단장 등 16명이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참석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또한 여러 동문들, 은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해 흥겨운 잔치가 됐다. ▲문의: 장경해(임) 회장 (909)821-2477 E-mail: lindaklim75@gmail.com (기사제공: 남가주진명동창회)

동부교계 게시판



AYC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와 뉴욕가정상담소가 공동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4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사랑과 정의 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원태 목사 사회로 NYPD Detective John Mason, Police Officer Tommy Choi, Police Officer Nicholas Kim(형법), 남수경 변호사(이민법), 뉴욕가정상담소 실무상담자 수 김, 크리스틴 주가 패널로 참석한다. 컨퍼런스 후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718)279-1313

주사랑장로교회 부흥회

주사랑장로교회(정준성 목사)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목사를 초청, 부흥회를 갖는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금 토요일 저녁 8시 30분, 4일 새벽 5시40분, 주일 오전 8시 30분과 11시에 열린다.

▲문의: (718)229-8855

뉴욕교협 청소년 농구대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청소년 농구대회가 5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퀸즈칼리지 사우스체 육관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교회의 중등부와 고등부. 참가비는 팀당 250달러이며 2개 팀 출전시 450달러. 4월 27일 이후 등록하면 25달러가 추가된다.

▲문의: (718)279-1313

북한교회 재건 위한 학술대회 및 기도회 열리다!

KAPC 총회교육부 주관, 목숨 건 강사들의 복음전과 간증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학술대회 및 기도회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수양관에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총회 소속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참석해 북한선교에 대한 소명을 불태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는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네 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초청됐다. 심주일 목사는 "주체사상을 깨뜨린 성경", "북한지하교회 개척", "북한교회 재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심 목사는 김일성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정치교로 복무했다. 친구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다 주체사상 기원이 성경에 있음을 알게 됐고 탈북해 한국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창조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북한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대북방송사업과 북한지하교회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멈출 수 없는 소명",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진리를 찾아서", "김정일의 운명과 북한의 운명" 등이 있다.

김재열 선교사는 1998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선교사로 파송 받고 북한에 들어가 병원과 교육시설 그리고 공장을 세워 운영하며 북한 직원들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결국 정치보위부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후에도 탈북신학생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선교를 계속하고 있다.

김요한 선교사는 김일성대학을 졸업했으며 중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다 선교사들을 만나 뜨거운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탈북했다.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와 풀러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합동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로 섬기며 통일선교전략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 다른 김 선교사는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탈북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계속해서

북한 성도들을 훈련해 다시 북한 땅으로 파송하고 있다. 이런 선교사들의 목숨 건 사역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북한 가정교회가 북한 땅에서 생겨나고 있다.

강사들은 이날 "동일은 연합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남한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통일교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7개의 교단이 연합해 독일 통일을 이룬 동서독교회처럼 남북한 성도들이 정치적이고 사상적 프레임을 버리고 한민족교회가 연합해 북한 선교가 아니라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교회, 북한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가? 모두 주님의 한 교회"라며 "북한 선교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단계적이며 전략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며 "한민족 선교를 위한 매뉴얼과 단계적인 전략을 갖고 북한 부흥을 위해 자신들을 불태우며 사역하고 있다. 이민교회들은 남한 교회들보다 훨씬 쉽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선교할 수 있다. 이에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학술대회를 준비한 총회 교육부장은 이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상설기구가 교단 안에 필요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날은 패넌토의를 통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3일만으로 부족한 시간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할 선교적인 도전이었다"는 평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번 학술대회 및 기도회를 주최하고 섬긴 뉴욕남노회 조덕남 노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한 교회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한민족 교회가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며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 나는' 그 날, 그 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서부에서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상향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뉴욕지역 22개 지역 새벽 6시 일제히 예배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관한 2019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부활주일 새벽 6시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드러졌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19일 회원들에게 보낸 부활절 메시지에서 "주 예수 다시 사심을 경축하며 경배한다"며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위치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성결하신 몸으로 빛도 없이 값없이 우리 인생들을 소망가운데 인도하시고 섬기셨던 주님. 오직 어둠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한 인생들을 광명의 세계로 옮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고결한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 값없이 죄없이 죽어주시는 죽음이었기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광명의 새 소망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며, 이젠 새 소망으로 힘 있게 이루게 하신 성결한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밝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부활의 성도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성도 각자가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삶을 통하여 각처에서 실천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다시 새 소망의 부활이 실현되어 지므로, 성결로 이뤄가는 사회요,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삶으로 이뤄져 가기를 온 인류의 가슴마다 부활의 찬란한 빛이 비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외쳤다.



베이스айд2 연합예배가 실로암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예배는 예년과 같이 교협이 제공한 동일한 주보를 사용했으며 22개 지역의 설교자와 본문 및 설교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코로나 우드사이드/박윤선 목사/마28:1-10/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 (2)엘름허스트 서니사이드/손한권 목사/마28:1-10/그리스도의 부활
- (3)플러싱1/최예식 목사/요20:24-29/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소망의 증거다!
- (4)플러싱2/하진국 목사/골2:12-15/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 (5)플러싱3/김학진 목사/마28:1-7/멈출 수 없는 신앙
- (6)플러싱4/김경렬 목사/요20:26-29/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 (7)플러싱5/김영철 목사/요20:19-31/기쁘다 이날
- (8)플러싱6/마바울 목사/마28:1-10/환희의 새 아침
- (9)플러싱7/이요섭 목사/요20:11-18/마지막 눈물
- (10)한기술 목사/고전15:12-13/부활의 신앙
- (11)프

레스메도우/최창섭 목사/고전15:55-58/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삶

(12)베이스айд1/박준원 목사/요20:19-23/살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3)베이스айд2/유상열 목사/행3:11-16/증인의 삶

(14)베이스айд3/임병남 목사/요6:38-40/내가 믿는 예수

(15)리틀넥/빈상석 목사/눅24:13-35

(16)라클랜드 웨체스터 브롱스/노기승 목사/요11:25-27/믿음의 핵심은 부활

(17)스테타일랜드/이기을 목사/막16:14-20/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18)맨해튼/김진우 목사/막16:1-4/열린 무덤

(19)브루클린/허용구 목사/요20:11-18/내가 주를 보았다

(20)롱아일랜드1/방지각 목사/고전15:20-13/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

(21)롱아일랜드2/이영상 목사/눅24:1-12/놀랍고 기쁜 소식

(22)롱아일랜드3/김재현 목사/막28:1-10/여기 계시지 않고.

(유원정 기자)



22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 보고 5개 지역 제외 현금 14,800여 달러

뉴욕교협 22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

뉴욕교협은 22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를 가졌다.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평가회에 앞서 열린 경건회는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주열 장로, 설교 임영건 목사, 합심기도 박마이크 목사,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임영건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자들이 양육 훈련했지만 본문에서처럼 믿지 않았다"며 "이런 현상은 우리 목회현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째, 성령이 이끄리는 삶을 사시고 둘째,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사역하셨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사역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할 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회무처리는 정순원 회장 사회로 이광모 장로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22개 지역장들 중 18개 지역장들이 참석해 연합예배 참석자 수와 헌금을 보고했다. 헌금은 5개 지역을 제외하고 1만4천800여 달러가 모금됐다.

정순원 회장은 헌금 중 일부를 미자립교회와 구제단체 후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지역장 대부분은 연합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브루클린 지역장 이윤석 목사는 브루클린 지역은 1년에 4회 정도 지역모임을 갖고 있다고 밝혀 평상시 지역별 연합을 강조했다.

또 임병남 목사는 지역장의 리더십, 지역구분의 문제, 짧은 준비기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교협은 25일 5월 10일부터 열리는 성령화 대성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22개 지역 설교자 확정...준비 완료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및 성령화 대성회 준비기도회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및 성령화 대성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와 성령화 대성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뉴욕메데사교회(김원기 목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유태웅 목사 안경순 목사의 경배와찬양 후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 성경봉독 김요한 장로, 설교 이만호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사,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직전회장 이만호 목사는 "두렵건대 빼앗기지 말라"(잠 5:9-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첫째,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 둘째 수한을 빼앗기지 말라 셋째, 재물을 빼앗기지 말라 넷째, 건강을 빼앗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감을 갖고 맡겨주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교협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는 회장 정순원 목사 사회로 백달영 장로(부이사장)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서기 이창중 목사), 업무보고(총무 이은수 목사), 안건토의, 폐회 및 오찬 기도(김영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부활절을 마치고 5월 10일부터 사흘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는 2019 성령화 대성회를 소개하며 "이 대회로 인해 뉴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폭발이 일어나는 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뉴욕에 천국잔치가 계속 되게 하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전희수 목사는 "22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준비위원장이 교체됐고 이로써 각 지역준비위원장과 설교자가 모두 확정돼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여성교회 수련회 폐회예배에서 강사 조진모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 믿음의 여인을 보라"

퀸즈장로교회 여성교회 수련회, 강사 조진모 목사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2019 여성교회 수련회가 22일과 23일 조진모 목사를 강사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조진모 목사는 "이 믿음의 여인을 보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개회예배에서 "십자가 신앙과 거룩한 남편"(막14:3-9), 오우예배에서 "믿고 간청하는 기도의 근거"(마15:21-28), 그리고 폐회예배에서 "사랑받는 여인의 지혜로운 입술"(삼상

25:32-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외에 회원들은 첫날 선교회별 친교와 게임, 운동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QT, 발표회 등을 하며 영적 심적 육신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퀸즈장로교회 여성교회회는 총 8개 교회로 이번 수련회에는 250여명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9면에서 계속>

셋째 날엔 간증과 세미나가 계속돼 테리 스미스 부총재와 김동수 Pilar College 교수가 강의했다.

C&MA한인총회는 7개 지역 회 내에 90개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이번 회기에 뉴욕모자

이크교회(장동일 목사), 타코마우리교회(윤상구 전도사), 새문한인교회(김관용 목사), 휴스턴비전교회(강주한 목사) 등 4교회가 가입했다. 또 뉴욕 열린예수교회(김상용 목사) 등 3개 교회가 폐쇄됐다. (유원정 기자)



KAPC 총회교육부가 주관한 북한교회 재건 위한 학술대회 및 기도회(동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남가주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제히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인 4월 21일 남가주 각 지역별로 일제히 열렸다.

▲21일 오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린 LA 지역 연합예배는 박성근 목사 사회로 열렸으며 김성대 목사(찬양교회)가 기도, 김승욱 목사(스텐톤교회)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장로성가단이 특별 찬양했으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20:19-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승훈 목사는 "부활하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예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인 21일 새벽에 남가주 각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예배, 오른쪽부터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린 OC지역예배, 왼쪽아래는 빅토리아복음교회에서 열린 빅토리아지역예배, 오른쪽아래는 산성교회에서 열린 사우스베이 지역예배

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 말했다. 신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 부활을 누리며 사명 받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협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다.

합심기도는 관건성 목사(예은교회)가 △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 김일형 목사(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한국 지도자들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회)가 △미국의 영적회복과 차세대

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새누리교회 성가대, 주님의영광교회 성가대, 남가주장로성가단 연합(지휘 김성수 목사)으로 합창한 뒤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열린 오렌지카운티 지역 연합새벽예배는 박재만 목사(미러를 포인트 교회) 사회와 미주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민승기 목사(새생명교회)가 대표기도했으며 윤우경 집사(OC교회 미디어 위원장)가 성경봉독, 문슬기 자매(미주비전교회)가 특송했다. 이어 이서 목사가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행4: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 사회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과 한반도 평화, 이후우 목사(OC교회 총무 이사)가 △교회갱신과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김기동 목사(중만교회)가 △OC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민경엽 목사(OC교회 이사) 축도로 마쳤다. ▲산성교회(윤석형 목사)에서 오전 6시에 열린 사우스베이 지역 연합예배는 고창현 목사(토크스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산성교회 성가대의 뜨거운 찬양에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김양현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밀알 정신으로 사랑과 복음 심겠다”

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 김양현 담임목사 취임

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는 지난 7일 주일 오후 4시 김양현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임시당회장 강신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김경희 장로 기도에 이어 해외인장로회 서종노회장 용장영 목사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엡4:11-12)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 이은 취임식은 취임목사와 성도들의 서약이 있은 후 노회장이 김양현 목사가 한우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음을 선포했으며 박규성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의 축사와 심규섭 목사(서종노회 동부시찰장)의 권면이 있은 후 김양현 목사의 담사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한우리교회 당회와 성

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님 한분만의 지파하며 목회에 임하겠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다른 것에 눈길 주지 않고, 한 알의 밀알 정신으로 사랑과 복음을 심겠다. 부족한 종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양현 목사는 한국성서대학교와 Seminario Teologico Presbiteriano de Mexico, Interneter Reformed Seminary에서 목회학석사과정을 마치고 세리토스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해오다 금번 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가족으로는 사모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

(이성자 기자)



LA신포니에타 베네핏 콘서트가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9 연례 베네핏 콘서트 성황

LA신포니에타 어린이&청소년 오케스트라

LA신포니에타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 2019 연례 베네핏 콘서트가 21일 오후 6시 쉐넬스쿨 지퍼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6년 이상 LA신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봄과 가을 정기공연과 연간 30회 연주활동으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여한 12학년 학생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 캔디서, 저스틴 나(첼로), 이우진(플룻), 구혜나(오보에), 김지호(바이올린)가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용재 뮤직디렉터는 "그동안 LA신포니에타 단원으로 열심을 다해 활동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수상한 단원들은 졸업생들이다.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 연주활동을 하게 될 텐데 LA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LA신포니에타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김용재 뮤직디렉터이자 상임지휘자가 조지 비제의 카르멘, 안토니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 등을, 부지휘자 전찬환 씨가 영화 어벤저스 OST, 그리고 학생지휘자 위성호 형제가 나서 지휘를 했다.

또한 부지휘자 전찬환씨가 피아노 연주자로 나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때 멜로디언 연주를 하며 입장제 청중들에게 폭소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이날 연주회는 김용재 뮤직디렉터의 지휘로 '하늘가는 밝은 길이' 연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대상 이안김(그림), 애린최(글짓기)

효사랑선교회 제7회 효글짓기 대회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지난 6일 홀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제7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그림공모전 시상식 및 축하공연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 영예의 대상은 그림 부문 이안김 학생, 글짓기 부문 애린 최 학생이 차지했다.

하나교회 유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용일 목사(남가주임마누엘교회 담임)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남승우 목사(원호교회 담임)가 개회 기도했으며 국민의례 후 이원준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재능을 사용하라'(시 139:14, 고전10: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영찬 목사가 환영인사 했으며 민승기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등단한 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신태섭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 연합 성가대(지휘 황신애 집사)들이 성가를 부른 후에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회장)가 '부활의 증인으로'(행2:23-24, 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김우준 목사(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김현수 목사(미국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김관중 목사(한국의 정치 안정과 남북한 화해와 통일 위하여) 각각 특별 기도를 하고 헌금 봉헌을 위하여 이 지역 목회자 일동이 등단해 특별 찬송을 부르고 윤석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빅토리아한인목사회(회장 김성일 목사) 주최로 오전 5시 30분 빅토리아복음교회(김은호 목사)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로 모였다. 목사회 총무인 강성수 목사(빅토리아복음교회 은퇴)의 사회로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 담임목사)의 대표기도 후 목사회 회장인 김성일 목사(빅토리아복음교회 담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눅24:44-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일 목사는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행태의 모습과 그럼에도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정각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시고 회복시키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변화된 신앙 자세와 사명에 대해 전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고 목사회 회계인 류창렬 목사(나눔동산교회 담임목사)의 봉헌기도 후 목사회 전체 회원들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합심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해(고승경 목사, 빅토리아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지역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김은호 목사, 빅토리아복음교회 담임 목사), 목사회와 지역교회를 위해(백석영 목사, 주의사랑선교회 담임 목사) 기도한 후 고광덕 목사(한인성안교회 담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벤주라 지역은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정택 목사)에서 ▲중부지역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LA 영어권 회중들을 대상으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베 이커스필드 지역은 ANS은누리교회 베이커스 캠퍼스(여승훈 목사) ▲샌디에고 지역은 팔로마장로교회(서명성 목사), 소망교회(이창우 목사) ▲밸리 지역은 주안교회(최희목 목사)에서 일제히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 게시판

제 7기 목회자 가정선교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회장 이재근 목사)가 제 7기 목회자 가정선교세미나를 오는 5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디나 지역 성화장로교회(15801 Brighton Ave)에서 개최한다. 가정선교 사역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재근 목사는 "사회문제의 발단은 가정의 갈등이 원인이다,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참석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로 선착순 30커플. 참가비 무료.

▲문의: (562)714-0691 jaekunlee00@hotmail.com

더텐트 파킹당 콘서트

더텐트 미니스트리(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파킹당 콘서트가 27일(토) 오후 6시 가주영어학교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노 김은혜, 베이스 이사효, 보컬리스트 이민우 전도사, 싱어송라이터 서린, 에픽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이지영 등이 출연한다.

▲문의: (213)999-4909

지저스키즈 교사세미나

지저스키즈(대표 에스더 임 전도사 Jesus kidz 교사세미나)가 오는 5월3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홀러턴 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교육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주일학교 전반적인 프로그램(찬양, 예배, 성경공부) 등이 다뤄지며 설교와 성경공부 교재 무료 배부(\$25)된다. 또한 풍선강의 및 주일학교 1년 행사 설명과 지저스키즈 2019년 VBS에 관한 논의가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다과가 준비된다.

▲문의: (213)422-0022

LA연합감리교회 설립115주년 음악회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는 설립 115주년 기념음악회를 28일(주일) 오후 7시 월서이벤트장에서 갖는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영미, LA연합감리교회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문의: (310)645-3699

임지석 목사 칼럼집 발간

나성세계교회 임지석 담임목사의 칼럼집 '아름답게 지는 사람'이 발간됐다. 책 구입은 이메일(pastortedlim@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213)219-9229

홀러턴장로교회 수난절 음악예배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홀러턴장로교회(노진걸 목사)는 수난절 음악예배를 성금요일인 19일 오후 7시30분에 가졌다. 이날 예배는 노진걸 목사가 말씀을 전한 후 본교회 연합성가대(지휘 이상은)가 베토벤의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를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치매 '진단' '치료' '예후' 소개

소망소사이어티, 치매 전문간병인 교육 실시

한인사회에 치매관련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는 '치매 전문간병인 교육'이 4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망소사이어티 LA지부 사무실(3030w Olympic Blvd #217)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상사회복지사(License Clinical Social Worker)이며 'The National Council of Certified Dementia Practitioners'의 강사이기도 한 예린김(MSW, CDP, CADDCT)씨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과정은 소망소사이어티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치매의 '진단', '치료', '예후' 등 치매의 거시적인 내용

이 소개됐다. 이후 세션은 오렌지카운티 "소망케어교실(치매환자 돌봄교실)" 동영상 통해 구체적인 돌봄의 현장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해 실제적이고 심화된 교육으로 '우울증', '반복적 행동', '편집증', '환각', '방황', '쟁여놓기', '공격적 행동', '영양', '개인위생과 관리', '문화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장소의 여건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기자 명단에 있는 교육생들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오렌지카운티 본부에서 '치매 전문 간병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한 제7회 효글짓기 그림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여성의 낙태권’ 선동에 생명 존중 무너졌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교계 반응·대안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낙태죄를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기로 한 만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이슈의 본질이 임신의 책임이 남성에 계도 있다는 데 있으므로 남성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사랑과책임연구소장은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은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임신 책임이 있다면 부양자가 돼 최소 20년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서구 여러 나라는 이처럼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성에게 그 비용을 받아낸다”고면서 “독일처럼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낙태 숙려기간 등을 갖게 했다면 지금처럼 여성이 등 떠밀려 낙태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

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결정의 본질은 낙태죄 존치나, 폐지나보다 양육비 책임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에 있었다”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등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은 국회를 통해 낙태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왜곡된 성문화와 피임 중심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은 “현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 해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손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탈락 ‘여성의 낙태할 권리’라는 선동 앞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문 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배 속의 태아를 더 일찍 죽이자는 해괴한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도 “학교현장에선 피임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교육을 진행해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낙태를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행

위는 출산과 양육에 책임이 있는 엄중한 행위다. 이를 다음세대에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제기될 낙태 약물 사용, 즉 ‘셀프낙태’를 허용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입법과정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다국적 제약업체 입장에서 한국은 연간 100만건 넘는 낙태수술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낙태 약물 구매수가 있는 시장”이라면서 “국민은 낙태 약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연(범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교적 병역회피부터 낙태까지 현재 결정에 이념적 판단이 계속 개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결정으로 공이 행정부와 입법부로 넘어갔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양대법인, 학생·교수 상대 거액소송 제기

매각반대 신학대 학생회장 등 상대 손해액 상향 검토중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안양대 타 종교재단 매각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신학대 학생회장과 교수 등에 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격분한 학생들은 법인 사무국을 지난 16일부터 3일간 점거 중이다. 안양대를 운영하는 우일학원은 지난해 8월과 12월 대진성주회 측 이사를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이력서에 경력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 이력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안양대 매각반대연합인 ‘TF48’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광태 우일학원 이사장은 지난 3일 원형호 신학대 학생회장과 비대위에 소속된 교수와 목회자 등 7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손해배상액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일학원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서 “피고들은 신학부

를 기반으로 학내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총장과 이사진 자리를 꿰차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진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안양대 비대위가 제기했던 이사장직 직무정지가 처분 소송과 언론 보도 등으로 김 이사장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안양대 비대위와 학생 측은 “민사소송과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안양대 학생들은 술렁이고 있다. 학생 150여명은 16일 오전 수업을 거부하고 법인 사무국이 있는 수봉관 6층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다. 우일학원 관계자들이 응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장병일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장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아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

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차분히 풀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매각 의혹의 핵심인 우일학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18일 오전 법인 국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왕 학생회장은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점거를 지속하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만 되풀이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왕 학생회장도 학생들은 이날 ‘불법 매각과 방만 경영에 대해 사죄하라’는 의미로 삭발을 한 뒤 검정색 옷을 입고 ‘학생 주권 장례식’을 열었다.

학내의 교수와 학생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점거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음식과 지지성명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안양대 교수협의회(회장 정일훈 교수)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안양대 총학생회와 총신대 총학생회도 지지성명을 통해 연대를 촉구했다.

“통합 임정 요인 절반 이상 목사·교인...”

한중국제교류재단, 상하이 ‘임정과 기독교’ 학술대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수립에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와 상하이의 한인교회는 어떤 기여를 했을까. 한중국제교류재단(교류재단·대표회장 오정현 목사)은 12-13일 중국 상하이 민항취(闵行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임정과 기독교의 관계를 조명했다.

학술대회에선 임정 요인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으며 교회 공동체가 구심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방 역사학계에는 이제라도 임정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술대회엔 상하이 교민과 교류재단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다수 참석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사에 귀를 기울였다. 오일환 의병정신선양회 회

장은 12일 기조발표에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흩어져 있던 임정의 통합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임정 통합을 주도했던 이승만 안창호 이동휘는 모두 기독교인으로 각자 희생하여 연합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희생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하나의 임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초창기 임정은 세 지역에서 조직됐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정 외에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국내를 거점으로 하는 한성정부가 있었다. 각 정부 요인들은 1919년 9월 본부를 상하이에 두는 데 합의한 뒤 임정을 하나로 합쳤다.

오 회장은 “통합된 임정 요인 중 절반 이상이 목사나 교인이었고 임정의 청사진을 그

리는 과정에서 상해한인교회(중국어 표기로 上海鮮人教會)에 수시로 모여 신앙적인 국가 건설을 꿈꿨다”고 밝혔다.

김병태 송실대 교수도 임정 수립 과정에서 상해한인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상해한인교회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적 결단은 임정을 만드는 데 결정적 동인이 됐다”면서 “독립을 바라는 임정의 정신적 뿌리도 상하이한인교회에 있었던 만큼 독립된 나라도 기독교 정신이 가득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환 수원대 교수는 “임정 수립 10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게 기독교인이 이바지한 부분”이라면서 “일방 역사학계가 간과해온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술대회에선 통일 한국을 만드는 모판도 임정의 기독교 정신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몽골 복음화 위해 ‘2010운동’

세기총, 몽기총과 부활절 감사 연합예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산 목사)는 몽골기독교총연합회(이하 몽기총)와 함께 세기총 임원, 현지 목회자 및 교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1일 오후 2시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몽골기독교총연합회 센터에서 부활절 감사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는 몽골사랑중앙교회 어유나 전도사와 몽기총 가나 전도사 통역으로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인도로 세기총 후원이사 김근태 안수집사의 기도, 세기총 사무부장 장민경 권사가 성경봉독(고전15:12-19)을 하고 몽골 마두금 연주단의 특별공연과 몽기총 찬양대가 “살아계신 주”를 특별 찬양했다.

세기총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그가 다시 사셨으므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줄 믿고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온 인류에게 구원

의 참 소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로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위해 몽골 잉흐바르트 목사가, △세계복음화와 몽골복음화를 위해 체체계 전도사가, △세기총과 몽기총을 비롯한 각 교회를 통한 사역을 위해 자르갈란트 전도사가 순서대로 기도하고 몽기총 청년중앙단의 찬양가운데 봉헌 순서를 가졌다.

몽기총 법인회장 김동근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몽골의 현재 복음화율이 2-3%에 불과하나 2020년까지 10%의 복음화를 위한 2010운동을 위해 세기총과 몽기총이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또 몽골 교계 대표인 보이만 목사, 나이든 목사, 톱쇼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몽골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4월 2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몽골기독교총연합회 센터에서 부활절 감사 연합예배를 드렸다.

‘선교 후원금 모금 절벽시대’ 열리나...

한국선교연구원 선교 후원 현황 발표

한국 선교계가 후원금의 지속적 감소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후원금 모금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원장 문상철 박사)은 16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사 후원금 모금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현장 선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결과를 발표한 문상철 박사는 “응답자 중 54.2%가 매달 2000-4000달러 사이의 후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사역비와 생활비를 합친 액수”라고 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43.2%가 2000달러 이하의 후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사역도, 생

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인 선교사가 절반에 달한다는 충격적 결과”라고 밝혔다. 응답자 중엔 월 후원금이 갑자기 20.0% 이상 감소한 일이 있다고 말한 선교사도 전체 14.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77.3%의 선교사들은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8.1%는 “모금이 아주 어렵다”고 응답했다. 모금이 어려워진 이유로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헌신의 약화가 꼽혔다. 33.9%가 선교적 헌신 약화가 이유라고 답했고 33.6%는 교회의 재정난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후원금의 증감과 관계없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3%의

등이 차례로 축소했으며, 몽기총 유미정 선교사가 내빈소개를 했다.

이어 몽골복음주의협회 관계자에게 지원금과 몽골교회에 강대상을 각각 전달했으며 한국교회연합 증경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예배에 참여한 300여명의 교우들에게 몽기총에서 준비한 특별선물을 박위근 목사, 조일래 목사, 김동근 장로 등이 전달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2부로 진행했으며 1부 예배에서는 몽기총 유미정 선교사 인도로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기도하고 조일래 목사가 요한복음 20:24-29를 본문으로 “부활-불신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세기총)

응답자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사역 중단을 고려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16.8%만이 재정을 이유로 사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 중 82.2% 모금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NGO처럼 모금을 위한 전문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62.7%의 선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원장은 “주 후원교회의 후원에 지인들에게 받는 소액 후원으로 사역과 생활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교단체가 기금을 확보해 소속 선교사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급하는 톱다운 방식도 검토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문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84%P다.

“주여, 핍박받는 북한동포를 구원하소서”

통일광장기도회, 14일 고난주간 맞아 북한구원 연합기도회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6명과 핍박받는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주간 통일광장 연합기도회’가 1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통일광장기도회는 지난 14일 ‘고난주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와 남한 국적 탈북민 선교사 3명 등 6명의 선교사와 핍박받는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주간 통일광장 연합기도회’ 15일 저녁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기도회는 통일광장기도

연합 주관으로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북한정의연대, 통일소망선교회, 주영광교회, 에스더기도운동, 부천 인천 통일광장기도회 등이 참석했다.

성중경 목사(인천 통일광장기도회)가 설교했으며,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이한백 목사(통일소망선교회), 최상일 목사(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대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이 기도 인도했다.

또 현재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의 친형인 김정삼씨가 참석해 호소

문을 발표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정의연대,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통일소망선교회가 지난 2011년 10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전국 50여개 지역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레로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는 2011년부터 8번째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역광장에서 한 주도 쉬지 않고 북한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회를 열고 있다.

총신대 총장에 이재서 교수 선출

사상 첫 非신학과 출신 1급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이재서(66) 총신대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총신대 제7대 총장에 선출됐다. 총신대 역사상 최초의 비(非)신학과 출신 총장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교수

를 차기 총장에 선출했다. 이 교수는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총신대의 회복과 하나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5세 때 1급 시각장애인이 됐으며, 서울맹학교 시절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집회에서 평

생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총신대 3학년 시절인 1979년 한국말알선교단을 창립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성서대 사회복지학을 졸업했다. 템플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럿거스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세계말알연합 총재를 맡고 있다.

특별기고



이국진 목사 (전주 예수비전교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으로 모든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한지 22주 이내의 태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했다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생명을 중시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모태에 사람을 짓기 전에 미리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시는데 분이시다(렘 1:5). 그래서 그 생명이 아무리 태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앗아버리는 것은 살인의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롬 1:20).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낙태는 죄라는 점만을 외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릴 것이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한 이유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사람들이 낙태죄 처벌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은 불신적인 동기 때문이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거저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악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다 끝난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취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악한 죄인이었다. 그들은 분명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착취하는 도둑질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향해서 비난했고 그들과는 식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이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천국의 잔치를 생각나게 하는 잔치에 초대하셨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신의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했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은 낙태죄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현 한국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행한 일들이 정당하다고 변호하신 적은 없다. 창기들도 받아들이셨지만 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변호하신 적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이 시점에 낙태를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면 정죄적인 압박을 가하고 비난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식이다. 우리는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야 한다. 낙태를 죄를 처벌할 경우, 과거에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아기를 출산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낙태를 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아기를 그냥 출산하지 않는다. 낙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낙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결국 불법적인 방법들은 산모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임신을 하게 한 남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채 여성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현재의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런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또한 낙태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남

자들은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있는데,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클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낙태를 죄로 정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본다면 왜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 왜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못하였느냐, 왜 술과 마약에 빠져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따지기 전에, 먼저 먹고 입고 돌보아주어서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과속을 했느냐 등등 질문을 던지지 않고, 먼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과 같다. 성에 대한 건전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해서 임신해버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책망질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한다. 그들이 낙태죄를 처벌하

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병원에 달려가 낙태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소중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에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 한다. 사실은 낙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그 길로 달려간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길러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태의 길로 달려간다. 그 옆에서 우리는 그냥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달려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총회적인 차원에서 미혼모를 위한 NGO를 만드는 일은 낙태죄 폐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보다 시급하다. 낙태죄 폐지는 낙태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을 비난만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낙태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신앙적이고 정신과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성급한 성명발표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을 당장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온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 결정은 보아온 것처럼, 앞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결정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

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물론 크리스천 정치가들은 교회에 이익을 던져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크리스천 정치가들로 가득 채워서 기독교적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은 불가능한 꿈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을 동원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한다. 바벨론에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이었던 것처럼, 신정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상을 무력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기드온처럼 우상을 파괴했겠지만 말이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낙태가 잘못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혼인의 울타리 밖에서의 간음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기독교에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헝가리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희생하고 헌신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주여, 도와주소서!
제 이빨 16개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프리미엄 임플란트를 해 주신 치과 의사인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기업 무를 자였음을, 그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예? 주여...! 이번엔 출간된 저의 책, "나도 존중받고 싶다"(두란노)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무를 자(Redeemer)가 뭐예요?"(194-201페이지)
저희는 1)책 출간 후 사역과 2)이빨치료를 한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3월 14일 헝가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명의 헝가리인 동역자들이 예배를, 세 명의 봉사자들이 급식을 감당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설교는 목사나 전도사인 피터르, 임레, 로베르트, 요셉이, 음식은 클라라, 주지, 율디코가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반주와 샌드위치 봉사는 저희 교회에 두 분 계시는 한국인 집사님(원, 신)이 감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소식과 기도제목, 간단한 사진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1)죽마고우인 박 목사의 우정과 형제애를 통해, 치과의사 문 장로님한테 사랑의 의술을 받았습니다. 11년간 9개의 이빨 없이 살다가, 좋지 못한 이빨 7개까지, 합 16개의 이빨을 임플란트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의사분의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입어 더욱 겸허해지며 감사합니다!
'이문동장로교회'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만났는데, 우리 가운데 4명의 목사, 선교사, 사모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소금과 빛 개혁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주의 충성된 자가 많이 나오게 하소서!
'서울대학교 교회'를 섬기는 친구인 홍교수를 통해, 주일에 배 말씀과 간증을 하였습니다. 헝가리에 주재원으로 계셨던 정 집사님이 책(나도 존중...) 배송 등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책 배너를 만들어주셨는데 책이 문서선교의 도구가 되길 기도해주시십시오! 이번 책은 거리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생생히 나누는 것입니다.
혹, 책을 더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저자구매 시 70%에 무료배송 해드리니 제게 연락 주십시오! 미국 LA 두란노에서 저자구매는 한권에 8.4달러이며, 배송비를 내야합니다(권수 제한 없음).
2)사순절 기간 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산도르는 12년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은 복음전도사로 삽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의 은혜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3)주일예배 후 예배당 마당에서 식탁의 교제가 좀 더 풍성해져서 감사합니다.
"거리의 교회"는 사람 수가 많이 줄었지만, 특별한 사연과



선교 편지

헝가리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르게이(50살, 러시아계 헝가리인)를 지난 화요일 '남부역 거리의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는 살인죄로 23년간 감옥에 있다가 작년 11월에 출소했고 나타샤와 가정을 이뤘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 그는 지금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4)저희 주일학교와 토요일 교과 향후 '소금과 빛 대안학교'로 신앙적인 교육을 감당하게 하소서!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에서 어린이들과 십대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쉬 공용임대주택'과 저희 10구역의 집사아이들뿐 아니라, 주변의 헝가리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이중 특별히 부탁드리는 기도제목은, 장자 '소금과 빛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감당할 미션으로, 복음전파와 예수님 제자 삼는 일로,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이 일 위해 믿음으로 감당할, 사무치, 교사들, 학생들을 보내주소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파라과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파라과이 선교사역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2019 6곳 교회 여름성경학교와 기독교 예술학교의 개학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개강과 개강 부흥회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독교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는 2월 8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 여름 성경학교를 5곳에서 1000여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교회, 기독교 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 갈보리교회, 벨렌교회, 영광교회, 사랑과평화교회에 35-40도의 열기 속에서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과자와 음료수 선물로 이들의 가슴에 예수를 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3. 파라과이에 여섯 번째 세운 개척교회 AmorPaz(사랑과 평화)를 신축 완공하여 200여명의 성도들과 임당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광림교회 청년들이 기초가 되어 사둔 이성복 사모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은혜 중에 완공하여 임당 예배



를 드렸습니다.
지난 다섯 곳 예배당을 지을 때보다 물건 값도 노임도 5-10배로 뛰어서 상당히 힘겹게 완공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철대문과 입구 베네타 공사를 마무리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4. 신학대학 개강 예배 및 개강 부흥회를 영성 부흥사서 정호 목사님을 모시고 2박2일간 공부하기 전 먼저 영성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5. 앞으로의 기도제목 중
1)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 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 분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3)2019년 교사 교수 임용과 신학기 학생모집이 잘 되어 전도의 문이 넓어지도록
4)여섯 번째 세우는 개척교회의 예배당 건축과 임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의 등대가 되도록, 전국 일꾼 양성이 잘 진행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중국기독교회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 (2)

노봉린 박사

AGST Pacific하와이신학대학 학장, 전 OMF선교사(1970-2000)



3. 정통적인 가정교회

모택동 주석이 1954년 삼자교회를 창설하고 중국문화운동 당시(1966-1976) 삼자교회만 정부에서 인정하며 이 외의 모든 가정교회를 불법단체로 핍박하였을 때 보수주의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무신론주의 정부의 종교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다.

정통적인 가정교회는 특별히 중국동부의 해변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에서 성하였다. 산둥성, 쑤저우(원주시), 후저엔성, 광둥성 등은 영국과 독일 식민지의 영향을 오래 동안 받아 온 지역으로 정통적 가정교회와

협회(WCC)의 한 멤버가 되었다.

II. 현재의 중국가정교회

1. 시징핑 주석의 “중국인의 꿈”

시징핑 주석이 2013년 말에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중국인의 꿈”(Chinese Dream)을 강조하며 이 꿈을 중국의 모든 단체와 사회에 적응시키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중국인의 꿈은 교육, 사업, 연회, 매스미디어, 종교를 포함한 중국사회의 다방면에 적용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종교들은 이 중국

4월에 기독교 NGO단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중국정부는 많은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정원조를 제한하며 NGO단체 지도부에 중국 동반자가 의무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다.

3)교회의 단체 활동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삼자교회에만 허락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종교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법은 현재 중국내 300-500개 불법으로 운영하는 가정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4)대형종교집회는 30일전 정

세 그룹 가정교회 공통점은 복음주의신학 소유하지만 접근 못해 시징핑의 “중국인의 꿈”으로 기독교도 정부종교정책에 동참해야

성한 지역이었다.

북경의 유명한 왕명도 목사는 삼자교회를 반대하여 23년간 감옥에 갇혀 노예 되고 상해의 Watchman News 목사(Little Flock 교단), Allen Yuan, Moses Xie, Samuel Lamb, Tianan Li 같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약 20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감옥성인”들인데 이들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신앙의 유산과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 그룹(시골, 도시, 정통적 가정교회)으로 나누어진 가정교회의 공통적인 것은 복음주의신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성령 충만, 성결된 생활 등의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그룹의 상호간의 관계는 중국정부의 보안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밀접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삼자교회는 1981년에 중국기독교 협회(China Christian Council)를 창설하고 1991년에 세계교회

인 꿈에 동참해야 하며 중국서 부 신장성지역의 이슬람교, 티베트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두가 “중국화”(Sinicize)에 응해야 하며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중국화 된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미는 기독교도 중국공산주의 정부에서 원하는 종교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참하지 않을 때는 정부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가정교회 핍박

시징핑 주석은 2018년 2월 “영원한 정권유지”의 특권을 통과시킨 후 곧 이어서 “종교사무 조례공포”를 선포하며 6개 조항을 강조하였다.

1)중앙정부(북경)에서 관리해 왔던 중국종교위원회(RAB)를 해산시키고 각 지역(쑤저우)의 성 종교부에서 그 지역의 종교 활동을 관할하게 만들었다.

2) 해외 선교자금은 10만 Yen(1,500달러)을 넘지 못한다. 중국에 7,000개 외국 NGO단체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2017년

부에 신고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 10만-30만Yen(1,5000-4,5000달러)을 내야한다. 가정교회 대중 집회는 중국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홍콩, 대만, 제주도, 태국, 한국에서 거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5)불법 가정교회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인은 20만 Yen(30,000달러) 벌금을 문다.

6)중국내의 외국선교사를 추방한다. 수많은 화교선교사, 한국선교사, 서양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으므로 외국선교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시징핑 주석은 대도시의 대표되는 가정교회들을 폐쇄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1년 4월 부활절에 북경에서 제일 큰 가정교회인 수왕교회(1000명 교인)에 경찰관들이 진입하여 교회를 폐쇄하고 김천명 목사(조선죽)와 부목사들을 체포하여 자택 감금하며 수왕교회는 지금까지 폐쇄상태에 있다.

rohonolulu@gmail.com

채플린 임상목회 (27)

착한 장례 문화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지난달에 한국과 미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비교와 성경적 장례 문화 정착에 대해 칼럼을 썼더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제언도 나눠주셨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위 ‘착한 장례’라고 해서 전통적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례식 장소: 한국의 경우, 장례식의 65%가 병원 장례식장, 25%가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며, 자택이 6%, 종교시설이 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임종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오면 일단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연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 외에 한국에서는 상조회라는 일종의 장례용업체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 절차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 비용이 개인 선산이나 미리 구입해 둔 장지가 없는 경우 도시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화장의 경우 대부분 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차 자택이나 요양지에서 환자가 편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이나 유럽식 장례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며,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도 교인들의 장례뿐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도 장례식 장소를 제공해주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모적 장례문화 개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94%가 장례비가 부담을 느낀다고 하며, 우리 장례 문화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81%(50대 이상은 92%)에 달한다는 연구 조사(2014 트렌드 모니터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선해야 할 장례 풍습으로는, 경제적 부담(82%), 도박 문화(51%), 음식 낭비(42%), 음주 문화(41%), 밤샘 문화(35%), 부의금 부담(25%)

순이었습니. 한 마디로 과소비적이며 허례허식의 관행이 자리 잡아 오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사회 관습과 통속적 문화에 별다른 대안 없이 휩쓸려 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재정적인 이유와 국토 재할용 등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인해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부분적이거나 대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사회 장례 문화도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미국의 현실적 제도와 적당히 타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 분들을 위해서 미국 장의사 내에 한인 담당을 두고 상조회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통해 장례품과 장례 방식들의 결정을 돕기도 하고, 종교적 선호도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마치 삼일장 같은 부인을 1-2일 동안 한 후에 입관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의 경우는 다음날 발인을 천국환송예배라 하여 장의사 내 채플에서 대부분의 조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식 예배의 형태로 진행토록 하는 모습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구위원들로 하여금 장지까지 리무진 차에 관을 싣고 가서 매장지에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목회자가 인도해주며 한인들은 이 모든 순서 후에 반드시 인근 식당을 예약해서 조객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한국적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상 왔을 때 식사와 음료를 개별적으로 대접하며 보통 상조회에서 고용된 도우미 아주머니 분들이 이 일을 사흘간 담당하기 때문에 하관 후에는 직계 가족들만 별도로 식사를 하며 마지막 추모예배의 형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교와 불교적 관습에서 장례 후 사흘째 되는 날 묘소를 찾아 탈상을 하는 삼오제를 드리고 영혼을 황천으로 떠나보내려는 49일째 사십구제를 흉내 내서 예배를 드리는 웃지 못할 토착 신앙과 결합된 장례문화가 상당히 확산되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 바른 장례를 위한 제언: 그러다 보니 소모적이며 과소비적이다 엄청난 시간과 희생이 요구되는 장례문화로 인해 세대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장차 젊은 세대들은 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경제적인 방안으로 자택이나 교회에서 마지막 임종예배 후 화장을 하는 대안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고가의 수의대신 개량한복을, 고가의 관 대신 친환경적인 화장용 종이관을, 고가의 매립 장지구입 대신 시립시설의 화장(10만원 미만)을, 심지어 납골당 구입(200-500만원)과 관리비 대신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유골을 뿌려서 장례 후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만 장례 문화가 보편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 역시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연구하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돌봄에 있어서 이제는 웰다잉에 초점을 맞춘 바른 장례, 착한 장례 문화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된 듯합니다.

tdspark@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1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 Chronicles 29:10, 11

10) David prai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whole assembly, saying, "Praise be to you, Lord, the God of our father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11) Yours,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Yours,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NIV 2011)

WORD & IDIOM

* in the presence of ~: ~의 앞에서 *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토록, 영원히 * majesty: 장엄 * splendor: 위엄, 영광 * exalt: 높이다. as head over all: 만물의 머리로서

GRAMMAR

10) David prai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whole assembly.

다윗(이) 찬양했다 주님(을) 온 회중 앞에서

saying, "Praise be to you, Lord, the God of our father Israel,

말하면서 찬양했다 주님(을) 온 회중 앞에서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토록 => 다윗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당신께 찬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 praise be to Lord는 기원문 May praise be to you(당신께 찬양이 있기를 빕니다)를 줄여 쓴 것이다.

* V+ing 는 문장을 단축하기 위해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주절과 관련한 부사절을 이끌 때 사용되며 동시동작, 또는 부대상황 등을 설명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분사구문이라 하며 해석은 주절의 내용에 맞도록 when, while, after, because, if, as 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적절하게 살려 해석한다. 위 문장에서 saying을 <따옴표 " " 안의 내용을 말하면서> 또는 <따옴표 " " 안의 내용으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아래의 11절 말씀도 " " 안의 내용이기에 때문에 분사구문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saying의 의미의 뒤양스만 주절에 넣고 " " 안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10)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당신께 찬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11) Yours,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당신의 것 주님 이다 위대함 권능 영광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장엄함 위엄 왜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다 당신의 것

=>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장엄함과 위엄이 주 당신의 것인데,

왜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Yours,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당신의 것 주님 이다 왕국 당신은 만물의 머리로서 높여지신다. => 왕국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 11절 위 문장에서 Yours, Lord, is the ~ 구문은 the 이하기 주어이다. the greatness ~ 는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 the kingdom의 경우는 그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기위해 각각 보어 (Yours)를 전치시키고 주어를 후치시켰다. 중간에 삽입된 Lord는 앞의 you가 누구인지를 수식한다.

STUDY & THOUGH

■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The Lord: 개역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다)에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윗이 여기서 야곱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되 특별히 자신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 11절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위대함, 장엄, 권능 등의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을 들어 그분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적 찬양이 우리의 삶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 Riches and glory come from God and in his hand are strength and power.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왕상11:40-43)

솔로몬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20세에 왕에 등극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타락하더니 결국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회개하고 전도서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본문의 교

훈은 솔로몬은 말년에 주변에 대적이 일어나고 많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결국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화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의를 섬기고(왕상12:1-7)

왕상12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힘들게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르호보암 왕은 좀 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강제적으로 노동시키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분란이 일

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왕은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에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을 우리는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수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하여(왕상12:8-11)

8절에 "노인"이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말년에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면서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해 좋은 것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목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왕상12:12-15)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다음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11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한 것 때문에 솔로몬시대에는 다윗을 파서라도 잡지만 그 아들세대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

은 복을 받은 것은 좋지만 자녀를 신앙교육 제대로 못시키는 바람에 안 좋은 것만 따라함으로써 결국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따르기보다는 나쁜 것을 더 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더욱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음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금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왕상12:16)

백성들이 다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힘든 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3일 후에 와서 하는 말이 부친 솔로몬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전갈로 징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르호보암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왕으로 인해 좋지

에 남과 북이 갈리고 북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뇨(왕상12:16-18)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어른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가 오히려 더 반발을 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생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궁

극적으로 르호보암이 북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훌륭한 부모와 훌륭한 어른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evittown,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목회, 무지, 중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무지, 무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배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회중: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디지털미디어 과잉노출, 십대와 여성에게 치명적

월드, 스마트폰·SNS 과잉사용으로 미국 십대들 정신건강에 빨간불 켜진 연구 보고

미국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2000년 전후로 태어난 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2000년대 중반 이래 미국 청년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자살행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Teens in crisis: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fuel skyrocketing mental health problems in young people today).

이번 조사를 보고한 연구팀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미국 성인 집단에선 그런 추세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에선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이상심리학저널에 발표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현상이 기분 장애(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상태)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수면을 심하게 방해하는 소셜미디어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믿는다.

조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주요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12-17세의 비율이 2005년 8.7%에서 2017년에는 13.2%로 늘었다(52% 증가). 18-25세의 경우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2009년 8.1%에서 2017년 13.2%로 높아졌다(63% 증가). 조사 시점 이전 한 달 동안 중증 정신 문제에 시달린 18-25세의 비율도 2008년 7.7%에서 2017년 13.1%로 증가했다(71% 증가).

중증 정신문제에는 초조와 불안, 절망, 너무 슬프거나 우울해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 않는 상태, 모든 일이 힘들다는 느낌,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느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살 충동을 느꼈거나 자살을 계획했거나 기도한 18-19세의 비율도 2008년 8.5%에서 2017년 12.4%로 늘었다.

특히 여성이 기분장애에 시달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 12-17세 소녀 중 13.1%가 그 이전 1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겪었다. 그 비율이 2017년 19.9%로 높아졌다. 5명 중 거의 1명 꼴이다.

이 연구는 미국 약물남용 조사연구(NSDUH)에 참가한 12세 이상 61만188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5-2017년 12-17세 21만2913명, 2008-2017년 18세 이상 39만896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논문(Age, Period, and Cohort Trends in Mood Disorder Indicators and Suicide Related Outcom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set, 2005 - 2017)의 주저자인 진 트윈지 샌디에이고주립대학 심리학 교수는 "2016-2017년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증가한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고 뉴스위크에 설명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급격한 증가로 인해 특정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자살 기도가 2008-2017년 두 배로 늘었다."

초연결 사회에서 성장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다룬 저서 '#세대를 퍼낸 트윈지 교수는 이 연구가 지역적으로 미국에 국한했으며, 또 NSDUH에 포함된 정신건강 문제만 분석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우울증, 심리적 스트레스, 자살 관련 문제의 측정은 자기 보고에 기초하지만 우리는 자기보고의 편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자살률도 조사했다."



기본장애 '세대교체' ...65세 이상 정신건강문제 되레 줄어 수면의 질적·양적 수준하락, 대마초 복용 등이 우울증 자살충동 주요 위험요인

트윈지 교수는 이 연구가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 원인을 확정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2009년의 대체체와 소득 불평등, 노동시장의 변화, 교육 압력 같은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보다 젊은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게임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이다. 물론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만 젊은이 사이의 기술 도입이 훨씬 더 빠르고 전면적이다. 기술이 그들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크다. 그에 따라 십대와 청년층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들은 친구를 직접 만나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트윈지 교수는 수면의 질적·양적 수준 하락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2011-2012년 시기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십대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잠들기 직전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수면 부족과 상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한편 듀크대학 의과대학원의 소아 기본·불안장애 전문가인 모이라 린 박사는 트윈지 교수의 연구가 잘 설계되고 진행됐지만 젊은 여성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위험

이 더 높은 이유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의 부상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팀의 우려에 공감한다. 여성이 사이버 괴롭힘과 수치심 주기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하루 12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어다는 사실은 정신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가정의학과협회(AAFP)의 이사인 스티븐 랜선 박사는 트윈지 교수의 연구가 젊은 층이 전자통신과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과 직접 연관된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해 자녀의 신기술·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요즘 청소년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약 30년 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요인이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를 괴롭힌다. 우리의 뇌는 약 25세가 돼야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다. 이 연구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뇌가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 요인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발표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자살 기도와 우울증에 시달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 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십대의 가장 인기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마리화나 사용의 정신건강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 연구 11건을 분석했다. 그들은 어떤 청소년이 대마초를 사용하는지, 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또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대마초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 자살 기도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폐경화증

염증 반응으로 폐가 굳어지는 병

폐경화증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질환이다. 흡연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은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치료도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폐경화증에 대해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치료방법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은퇴한 60대 후반의 정 모 씨는 2년 전부터 걸을 때마다 숨이 차오는 것을 느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면 숨이 찬 증상이 없지만 빨리 걸거나 언덕을 오를 때는 숨이 몹시 차서 자주 서서 쉬어야 했다. 또 몇 년 전부터 가끔 기침이 나곤 했는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고 기침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슴이 아프거나 속이 쓰린 증상은 없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지만 심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고 기침도 더 심해져서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정 씨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수술도 받은 적이 없어서 스스로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력은 아버지가 젊어서 폐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젊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피웠지만 20년 전 미국에 이민 온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이민 온 후에는 봉제업을 하다가 2년 전에 그만두었다. 검사상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95회로 빠른 편이었다. 혈중 산소 농도는 평상시 92%로 감소해 있었고 운동 후에는 85% 이하로 떨어졌다. 폐 청진상 양쪽 폐 아래쪽에서 나음(부스럭하는 소리)과 폐부종이나 간질성 폐 질환에서 들을 수 있다가 들렸다. 가슴 엑스선 상에서 양쪽 폐의 간질성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보였고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의 저하가 보였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미세 폐 단층 촬영을 한 결과 폐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폐경화증(Pulmonary fibrosis)은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폐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가 굳어지는 병을 말한다. 폐경화증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추측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부른다.

폐경화증에 걸리기 쉬운 위험인자는 흡연습관, 50세 이상의 고령, 남성 등이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흑인보다 더 흔하지만 흡연을 많이 하는 동양계에서도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약물이나 먼지 등 환경적인 요소도 폐경화증의 발병과 관계가 있고 가족성 폐경화증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되고 있다. 폐경화증의 발병 기전은 폐의 염증 활동이 증가해서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등이 사용되지만 호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폐 이식은 공여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식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술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다행히 현재 폐경화증 치료에 대한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준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현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한달 입학비 면제 이벤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4월 한 달간 입학정보 신청 및 온라인입학원서를 제출하시는 분에게 입학시 입학비 \$80을 면제해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A 확장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75)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카카오톡: gmu3000